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2년도 학술연구보고서(교육분과)

# 東學의 人間觀과 現代教育的 意味

李 元 浩(釜山大)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2년도 학술연구보고서(교육분과)

# 東學의 人間觀과 現代教育的 意味

李 元 浩(釜山大)

# 目 次

I. 緒 言 .....		3
II. 東学思想 形成의 背景 .....		7
1. 東学發生의 背景 .....		7
2. 東学思想의 基底 .....		13
III. 東学教学思想의 内容과 性格 .....		22
1. 東学의 生成發展論的 宇宙觀 .....		22
2. 東学의 善惡觀과 共生論理 .....		25
3. 東学의 人間平等 定立論 .....		27
4. 東学의 地上天国 創造論 .....		29
IV. 東学의 組織과 教育實際 .....		35
1. 東学의 組織 .....		35
2. 東学의 教育内容과 方法論 .....	<del>自由精神·德行·自誠不欺·天賦性學</del> <del>明德命道·誠敬果心</del> 清安·學年·學人學 · 心學 Secretive	37
1) 修德原理 .....		37
2) 待人教育 .....		51
3) 修練課程 .....		54
4) 經典과 歌辭 .....		62
5) 生活實踐 .....		66
6) 兒童尊重 .....		71
7) 女性尊重 .....		75
8) 實業教育 .....		79
V. 東学의 教育事業 展開 .....		92
VI. 結 語 .....		92

4월 29일 1910년 12월 29일

## I. 緒 言

東學의 歴史的 位置나 그것이 남긴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면으로 그 解釈과 評價가 내려진 바 있다.

本 研究는 東學을 韓國教育史의 側面에서 그것이 남긴 意味性을 人間教育思想이라는 脈絡에서 整理해 보고자 한다.

대체로 韓國人이 지너왔던 教育觀이 어떤 世界觀·價值觀의 土臺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그러한 世界觀·價值觀에 어떤 影響을 끼쳤으며 教育에 대한 期待나 그 期待를 이루기 위한 教育 受容程度가 어떠한가를 몇 마디로 朦朧그려 結論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韓國人의 意識構造의 形成에 있어서 歴史的·文化的 過程이 單線圖式으로 설명될 수 없는 複合的이며 混在的·融合的인 性向이 질기에 그러한 터전과 意識世界 위에 형성된 教育觀의 定義는 몇 마디로 쉽사리 내려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어떠한 民族이나 國民에 있어서도 그 意識構造의 形成에는 所與的·文化的 土臺 위에 他文化와의 接觸·葛藤·採用 等の 變容過程을 겪으면서 하나의 文化形成과 意識化 過程 속에서 教育觀 또한 確立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人의 教育意識이나 價值體系를 흔히 샤마니즘으로 불려지는 巫俗 유래설을 비롯하여 外來的인 佛敎·儒敎·道敎·基督敎가 가져다 준 직접·간접의 影響력에서 韓國人의 教育觀·價值觀이

形成되어 왔다는 풀이도 說得力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덧붙여 說明하자면 韓國人이 지닌 보편적이며 특수한 教育意識이나 世界觀이 存在한다면 이는 韓國人 特有的인 오랜 生活經驗에서 우려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인간은 단순한 生活經驗에서부터 人智를 제발하고 生活의 규모가 확대 됨으로 인하여 모방·훈련·학습이라는 단순한 반복과정에서만 누적적 생활경험을 습득할 수 없게되자 意圖的·形式的·制度的인 教育이 要請되는 단계에 이르렀듯 韓民族 또한 生活經驗의 증가와 함께 教育에 대한 意識化는 展開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形式的인 教育이 成立되기 위한 생활양식으로서의 文化의 누적적 증가는 外來文化의 채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外來文化의 채용 또한 기존사회의 문화영위에 의해 인식되고 평가되고 시험되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를 理念的인 面에서 살펴보아도 韓民族 또한 外來文化의 수용에서 온 체계적이고 논리화된 高等종교나 實踐道德의 규범이 갖추어지고 그것이 정착되기 이전부터 그 나름의 自然觀이나 生死觀은 내려져 오면서 存在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랜 이동생활이 끝나고 농경을 주로 하는 定住生活이 시작되고 부터는 지난 날의 조잡한 생활에서 차츰 소박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大自然의 신비와 삶과 죽음이 단절되지 않는 독특한 生死觀이 形成되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sup>1)</sup>

1) 金得椶, 韓國宗教史. 서울: 白岩社, 1978, 第1章 上古時代 參照

그러나 理念이나 意識世界가 歷史的·文化的 條件에 따라 變하느  
니만큼 韓國人이 살아 온 條件에서 지니게 된 意識世界·教育觀의  
形成에 영향을 준 가치세계의 수준을 몇 마디의 용어로 간단히 규  
정할 수는 없다. 한국인 나름의 의식세계·教育意識은 오랜 시간  
의 점진적인 누진을 통하여 하나의 뼈대를 이루어 왔던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歷史的·時代的 變化에 따라 주어진 생활조건이 갈아 질  
수가 없고 이질적이고 다양화된 生活條件은 원초적인 의식구조 위  
에 변용된 이념이나 삶의 슬기를 복합적이고 누적적으로 쌓아 왔  
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한국인이라는 集團成員이 지닌 教育觀이 抽  
出된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히 일체적인 동의를 수렴할 수 있는 성  
질의 것은 아니다. 이는 원초적인 의식구조에서 출발하여 일상적  
이며 생활을 중심으로 한 상식적 범주에서의 教育觀이 存在한다면  
그와 더불어 이상적인 삶의 哲學이나 社會理念을 지향한 觀念的  
形而上學的 教育觀이 存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대체로 가치지향적 성향을 지닌 것이라고 본다면 한국교  
육사에 있어서도 고등종교나 규범·덕목이 이 땅에 들어와서 土着  
化하는 過程에서 보였던 生活과 宗教의 절충이 자연스럽게 융화되  
어 전개된 장을 순조롭게 열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  
간의 흐름에 따라서 불교의 경우도 자비에 터한 人間探究와 苦行  
이란 本然의 方向보다는 무엇을 빌어서 이루고자 하는 주술적인 祈

願 祈福的 形式이 강화된 경향마저 없지 않았으며, 儒敎도 本來的 人間儒敎에서 御用儒敎로 變質되어 갔다. 이렇듯 儒敎와 仏敎가 理想的인 社會의 理想으로서의 價値를 喪失하고, 天主教마저도 韓民族의 支配的인 價値觀으로서 意味를 가질 수 없었던 좌절과 방황의 시기에 삶의 價値觀과 社會理念을 새로이 提示하여 民族的 危機를 克服하는 獨自的이며 時代的인 敎育으로서 東學은 主目的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東學은 從前의 모든 지도논리가 上意下達이라는 종속적 맥락에서 전개되었던 前例를 벗어나서 民衆이 주체가 되는 만인의 平等과 人間의 尊嚴性·대등성을 확인했으며 이는 歐美에서 전래된 계몽주의나 民主主義 사상체계와는 전혀 無關하게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중운동·민권자각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東學이 지녔던 그 思想과 이루고자 했던 理念과 實踐規範들은 그 것이 바로 人間의 엄숙한 자각과 존엄성의 선언이었다는 면에서 높이 評價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한국의 人間敎育思想의 하나의 소중한 유산이며 맥락으로 이해·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東學에서 天道敎에 이르는 일련의 敎化活動은 한국敎育사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敎育文脈으로 정리되어야 할 素材가 될 것이며, 이의 再照明은 敎育학이라는 側面에서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 Ⅱ. 東學思想 形成의 背景

### 1. 東學發生의 背景

東學이 唱導되고 지지된 그 當時의 國內外 情勢는 몇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다단한 위기적 상황이 그 밑바닥에는 깔려 있었다.

朝鮮王朝 末期의 權力構造는 極度로 부패·타락되어 탐관오리 등의 횡포는 드디어 限界收奪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社會解體 現象은 윤리나 정치기강의 해이로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民衆은 生活의 도탄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國內秩序의 末期的 現象은 弱体化된 王室과 더욱 이기적인 탐욕에서 헤어날 줄 몰랐던 특권층의 횡포에다 當時 時時刻刻 禍를 조여 오는 西勢東漸하는 外勢의 날카로운 잇빨을 막아 볼 기력마저 잃은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風前燈火가 된 위기적 狀況이었다.

吳知沆은 그의 東學史에서 이 때의 實情가운데 朝鮮時代 敎學과 密接한 關聯性을 지녔던 人材選拔인 科擧制마저 그 운영여하에 따라 敎學風土의 正常化를 부르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상당한 要因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처한 난맥상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과거라고 하면 물론 文科나 武科를 두고 한 말 일 것이다. 이

른바 文科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문식으로 人材를 뽑는 것이었다. 조선 안에서 하는 일이면서도 조선의 사적이나 조선의 사정이라고는 조금도 말할 수 없고 다만 중국의 사적이나 중국인의 사정으로써 중국인의 문자로 하는 것으로 그것이나마도 말세와 와서는 모두가 험잡하고 말았다. 이른바 과거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 외면으로는 과거급제를 공공연히 내어 걸어 놓았다. 여러 만명이 지은 글장을 거두어 試所로 들어 갔다. 그 다음 날 榜目이라는 것을 보면 이른바 글자한다고 하는 사람의 성명은 볼 수도 없고 다만 돈 많은 부자의 자식이나 세력있는 집 자손의 성명만이 걸려 있는 것이요, 武科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와같이 활줄이나 쏘는 자의 성명은 볼 수 없고 돈 있는 놈, 세력있는 놈의 성명만이 걸리는 것이며 과거이외에 모든 벼슬이라는 것도 상당한 人材를 뽑아 다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私情으로 청탁으로 하여 관직 선택하는 것을 마치 시장에서 물건매매하듯이 하였다... 2), 고 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사회의 터전이 붕괴되었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현실과 압담한 조국의 오늘을 바라본 水雲 崔濟愚(1824-1864)는 安心歌에서 당시를,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국운수 가련하다. 前世 壬辰 몇 해런고  
 二百四十 아닐런가 十二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요순

2) 吳知泳, 東学史(科官의 挾雜과 貪官汚吏의 行惡), [東学思想資料集, 貳], 서울: 亜細亜文化社, 1979, p. 97.

성세 다시 와서 국태민안 되지마는 기험하다 기험하다 아국운수  
 기험하다 개같은 왜적놈아 너의 신명 돌아보라 너의 역시 하륙  
 해서 무슨 은덕 있었던고 전세 임진 그때라도 오성한음 없었더  
 면 옥새보전 뉘가할꼬 아국명현 다시없다 나도 또한 한울님께 옥  
 새보전 봉명했네~ 무병지란 지낸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한울님  
 께 복록 정해 수명일량 내게비네. 내 나라 무슨 운수 그다지  
 기험하고 거룩한 내집부녀 자세보고 안심하소..... 3)

라는 종말적 국면의 실정을 지적하고 이 위기를 딛기 위해서는 동  
 학을 통한 再生 이외에는 수습책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水  
 雲은 「古속에 들은 바 없는 古속에 比할 것이 없는 法」으로서  
 의 道를 깨닫고 1860年 陰曆 4월에 東學을 唱導하게 된다.

水雲은 論學文에서 자신의 「道」를,

내가 東에서 나서 東에서 받았으니 道는 비록 天道라고 하지  
 만 學은 東學이라 하물며 땅이 東西로 나뉘었는데 西가 어찌 東  
 이 되며 東을 어찌 西라고 말하겠는가 공자는 노나라에 나시어  
 추나라에 도를 뿜기 때문에 추로의 풍화가 이 세상에 전해오는  
 것이어늘 우리 道는 이 땅에서 받아 이 땅에서 뿜으니 어찌 西  
 道라고 이르겠는가 4)

3) 奄譚遺詞, 安心歌

4) 吾亦生於東 道雖天道 學則東學 況地分東西 西何爲東 東何爲西  
 孔子生於魯 風於鄒 鄒魯之風 伝遺斯世 吾道 受於斯 豈可謂必  
 西名之者乎 [東經大典, 論學文]

라고 못 박고 東方(東國)이란 독자적인 처지에서 유럽의 「西學」과 유교의 「鄒魯의 風」과도 다른 東方教理를 창도했던 것이다. 이는 기존의 仙敎·儒敎的 價值體系의 形骸化와 밀려드는 外來思潮에 대한 危懼感과 民族意識 覺醒에의 促求이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儒道·仙道 累千年에 運이 역시 다했던가  
 敎訓歌 [ 龜潭遺事 ]

라고 자문하고 이미 유교의 윤리·불교의 覺醒·仙道의 養氣는 天道의 한 속성에 不過하며 當時의 民族的 위기에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는 東學만이 가능하며 東學의 「布德天下」에 의해서 비로소 「~~韓~~國安民」과 「~~廣~~濟蒼生」이 기약된다고 하였다.

이는 朝鮮王朝의 指導理念인 朱子學은 명종·선조 때의 退溪·栗谷으로 한 때 그 生命力이 高調되었으나 이후 黨爭의 격심은 空理空談으로 기울어져 日常生活과는 멀어져 갔다. 거기에다 봉건적 신분제 질서의 解弛와 권력체제에서 배제된 몰락양반의 증가는 옛부터 鄒魯之鄉으로 일컬었던 嶺南地方에서 그 問題가 表出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封建社會의 支配的 觀念形態인 仙敎는 抑仙崇儒策마저 겹쳐 이미 時代的인 生命力을 喪失하였으며 民間信仰化한 재래의 巫覡과 風水 讖緯思想은 社會不安이 짙어 갈수록 民衆의 一時的 歸依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 金義煥은 東學의 發生背景을 끝맺

음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哲宗代에 東學이 나타날 수 있는 地域性과 또 지닐 수 있는 性格의 客觀性과 可能性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卽 지역적으로 볼 때 沒落兩班이 많은 嶺南가운데서도 가장 外來文化의 영향이 적은 慶州라는 땅에서 沒落兩班의 身分을 타고난 崔濟愚에 의해서 東學이 提唱된 것은 偶然之事가 아니며, 또 그 性格으로서 民族的이요 批判的이요 어느 정도 反封建的이며 後天開闢의 現實否定的인 性格을 지니게 되는 것은 必然之事였다.”<sup>5)</sup>

고 보았다. 즉, 東學은 그 스스로가 當時 전파되어 가던 西學인 天主教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양반계층의 지배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던 儒敎에도 과감하게 도전하자 드디어 異端의 敎理라는 구실로 水雲은 1864年 3月 「左道亂正」으로 大邱監營에서 殉敎 당하였다.

특히 1860年代에 東學이 庶民層에 스며 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는 朝鮮의 宗主國으로서의 大國이었던 淸이 英仏聯合軍의 天津北京 攻陷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으며 그 공포감도 심각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水雲은 「布德文」에서

“西洋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입술이 떨어지는 탄식이 없지 않을

5) 金義煥, 東學思想의 歷史的 背景, [韓國思想叢書Ⅲ, 韓國思想研究會, 1973], p.155.

것이니 보국안민의 제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안타까워라<sup>6)</sup>

고 하여 中国을 唇, 朝鮮을 齒의 관계로 본 당시로서는 중국의 멸망은 곧 조선이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의 水位가 위험표지에 육박했음을 알린 것이며 勸學歌에서

下元甲 庚申年에

전해오는 세상 말이

妖妄한 西洋賊이

中国을 侵犯해서

天主堂 높이 세워

저 소위 하는 道를

天下에 遍滿하니

可笑絶腸 아닐런가 [ 竜潭遺事 勸學歌 ]

라 하여 當時의 民衆사이에 번졌던 질은 不安意識을 代弁하고 있다. 여기서 水雲은 保國安民을 전제한 天人一如인 「人乃天」을 기본 宗旨로 삼고 布德天下에 의해서 「億兆蒼生이 同歸一體」하는 地上天國의 實現에서 그 救援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對立反目하는 封建的 身分制의 克服에 의한 人間平等主義의 實現으로서 貧富貴賤마저 선천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 민중의 자각을 촉구하고 그 士氣를 鼓舞하고자 의도하였다.

6) 西洋 戰勝攻取 無事不成而天下尽滅 亦不無唇亡之歎 保國安民 計將安出 惜哉 [ 東經大典, 布德文 ]

## 2. 東學思想의 基底

朝鮮朝末期는 政治의 紊亂, 各地의 民憂, 外勢의 干섭으로 社会的인 不安과 긴장이 높아가던 時期이다. 이와 더불어 民衆들은 이미 生命力을 喪失한 儒敎나 仙敎를 精神的인 支柱로서 기뻐 수가 없었고 새로 들어 온 天主教마저도 탄압으로 기를 펴 수 없게 되자 무너져 버린 삶에서 新生의 이념을 대신할 새로운 皮난처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時期에

우리 道는 예나 지금이나 듣지 못하던 일ियो, 지금이나 옛날에 비길 데가 없는 진리<sup>7)</sup>

임을 내세우고 展開되었던 東學은 時代的 歷史的 狀況에 부응하는 思想이자 宗教였던 것이고 民衆의 요청에 응하는 정신적 안식처 였던 것이다. 따라서 時代와 民衆 그리고 삶의 각성으로서의 合一점으로 東學運動에 內在하였던 宗教的 本質과 그 思想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東學思想에서는 人乃天의 自覺的 人間觀에 이어 輔國安民으로서의 東學의 自己確立을 들 수 있다.

이 점 水雲의 思想特性에 있어서

가련하다 가련하다

이내 家運 가련하다 [ 竜潭歌 ]

7) 吾道 今不聞古聞之事 今不比古不比之法 [ 竜潭遺詞, 論學文 ]

라는 不運한 沒落兩班으로서의 자신의 運命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水雲의 思想的 關心은 個人的인 내 「집」이라든가 귀족적인 「양반」에의 回歸나 집착에 머물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國家」나 「民衆」으로 확대 시킴으로서 東學은 民族的 宗教로서 定立과 동기부여가 가능했다.

그러기에 東學에서의 「집」에의 관심은 東學思想의 出發點이면서도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이라는 상관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하겠으며 여기에 보다 보편적인 민중이나 국가에의 관심이라는 기반이 다져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집」의 몰락에 대한 고민은 비록 개인의 운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붕괴직전의 국가사회와 동질의 비중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가정·사회·국가의 관심은 동일선상의 보편적인 관심으로 제기시킨 것이다.

이는 자신만이 양반에 복귀해서 부귀영화라는 사회적 우월성을 회복하자는 문맥이 아니라 이를 부정하고 극복하는 데 두었던 것이며, 진정 고통에 방황하는 民衆의 処地에서 意識하고 同參코자 했던 것이다. 여기에 국가운명에 관한 드높은 관심에의 확충이 가능했다.

可憐하다 可憐하다

我國運數 可憐하다

前世壬辰 몇해 런고

이백사십 아닐런가

十二諸國 怪疾運數

다시開關 아닐런가 [ 龜潭遺詞 安心歌 ]

東學의 歌辭 속에 보이는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나 민족의 운명도 동학을 통해서 對內的으로는 정치의 부패·타락·토색질이 공언했던 사회적 병폐와 ~잡았던 怪疾에 시달리는 民衆을 위한 「安民」의 해결을 동학이 수행할 것으로 자신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또한 한울님께

옥새보진 奉命했네 [ 安心歌 ]

라고 해서 스스로가 이의 受任者로서 자신이 받은 天道 即 東學으로써 사람들을 깨우쳐서 亂世를 다스리고 위기에 허덕이는 이 나라를 救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對內的 危機에 對処해서 안으로는 누적된 봉건적 질곡과 그에 따른 신분질서에서의 저항과 對外的으로는 斥倭와 脫中華라는 民族自主에의 뚜렷한 指向性을 내 걸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둘째, 反西學사상으로, 東學이 西學과는 別個임을 천명하였다. 天主教탄압은 곧 反儒敎에서 시작되었으나 차츰 西勢侵入의 두려움이 더욱 天主教徒의 탄압을 강화시켰다. 外國 군함의 출현은 民心을 흉흉하게 했으며 英仏聯合軍의 北京攻陷의 소식은 民心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실정을 水雲은

庚申年 四月에 이르러 천하가 분란하고 民心이 효박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를 즈음에 또한 서로 어긋나는 괴상한 말이 세상에  
떠들썩하되

「서양사람은 도덕성립이 되어 그 조화로써 일을 이루지 못함  
이 없고 무기로 싸우는데 당할 사람이 없다하니 중국이 소멸하  
면 어찌 입술이 떨어지는 근심이 없겠는가」<sup>8)</sup>

라고 하여 當時의 西勢를 西學으로 묶어서 오인한 혼란상을 깨뚫  
어 보고, 그 대항논리를 東學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그렇더라도 당  
장은 서양세력에 대항하는 데 물질적인 「甲兵」으로서는 당할 수  
없으나 學에 있어서는 東學이 西學보다는 우세하다는 「天極大通」  
「天道」인 東學 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安心歌에서도 자신의  
學이 西學이 아님을 천명하였듯이 天主의 개념도 西學과는 다르다  
는 것을 「侍天主」를 說明하면서

「主」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와 같이 섬긴다는 것이오.<sup>9)</sup>

라고 해서 일반적인 존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天主를 萬物의 創造者로 보는 基督教의 입장과 존속하는 實在의 원  
천으로 「天」을 보는 東學의 차이가 도출된 것이다.

8) 夫庚申之年 建巳之月 天下紛亂 民心淆薄 莫知所向之地 又有怪違  
之說 崩騰于世間 西洋之人 道成德立 及其造化 無事不成 攻闖干  
戈 無人在前 中國消滅 豈可無唇亡之患耶 [東經大典, 論學文]

9)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 [東經大典, 論學文]

西敎에서는 造物主와 被造物이 同一하게 된다는 것은 영원히 不可한 것이 되지만 이 점 東學에서는 「無爲而化」라는 陰陽의 法則에 의해서 이루어진 萬物 가운데 사람은 그 中에서도 보다 靈的인 存在者이기에 敬天順天함으로써 天人一如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東學에 있어서의 天主의 개념은 天地萬物의 근원이기는 하지만 創造主·救濟主가 아니며 구제에 있어서도 人間이 한울님에 感應해서 內面的으로 융합하고 一體化되는 곳에 진정한 救濟를 설정하였다. 이점을 勸學歌에서

我 東方 어린사람  
 禮儀五倫 다버리고  
 男女老少 兒童走卒  
 成群聚黨 極盛中에  
 虛送世月 한단말을  
 보는듯이 들어오니  
 無斷히 한울님께  
 晝宵間에 비는말이  
 三十三天 玉京臺에  
 나죽거든 가게하소  
 우습다 저사람은  
 저의부모 죽은후에  
 神도없다 이롭하고  
 祭祀조차 안치내며

五倫에 벗어나서

唯願速死 무삼일꼬

父母없는 魂靈魂魄

저는어찌 唯獨있어

上天하고 무엇할꼬

어린소리 말았어라

[ 竜潭遺詞 勸學歌 ]

東學은 死後의 天國說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특히 전래되어 온 奉  
祭祀의 폐지 등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東學은 祭  
祀·五倫 等 유교적인 가치성을 포섭하면서 西學에 대립하고 있다.  
이는 東學이 儒敎·仙敎·道敎 등의 전래적인 사상이나 관습내용이  
나 요소를 自己化하면서도 外來的인 天主教와는 다른 獨自的인 教  
理로 對立하였음을 뜻한다.

세째, 儒學의 克服으로서 東學 自体가 봉건체제에의 반항적 성격  
을 지녔다 함은 조선왕조 통치 이데오로기였던 주자학에의 도전이  
었다.

동학사상은 그 構成要素에서 儒·仙·仙 뿐아니라 風水地理說·陰  
陽說로 불려지는 잡다한 民間信仰이 混入되어 있으며 이를 또한 적  
절히 활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질층에서 빛기 쉬운  
문제를 융합적인 차원에서 해소할 것을 「天道敎創建史」에는 아래  
와 같이 적고 있다.

吾道는 元來 儒도 아니며 仙도 아니며 仙도 아니니라. 그  
러나 吾道는 儒·仙·仙 合一이니라. 卽 天道는 儒·仙·仙이 아니

로되 儒仙은 天道의 한 部分이니라 儒의 倫理와 仙의 覺性과 仙의 養氣는 사람 性의 自然한 品賦이며 天道의 固有한 部分이니라 吾道는 그 無極大源을 잡은 者이라 後에 道를 用하는 者 이를 誤解하지 말도록 指導하라 하시고..... 10)

이는 당시의 儒教 卽 朱子學에 대해서도 절충주의적이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東學의 경전이나 관제 歌辭 곳곳에서 강조된 유교의 仁義禮智·三綱五倫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면에서 본다면 東學은 유교와도 무난히 절충·융화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나

공부자의 道를 깨달으면 한 이치로 된 것이요 우리 道로 말하면 대체는 같으나 약간 다른 것이 있나니라.<sup>11)</sup>

고 전제하고 「약간 다른(小異)」 것은 곧,

仁義禮智는 先聖之所教요 守心正氣는 惟我更定 [修德文]

이라고 해서 유교윤리에다가 「守心正氣」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유교 그 자체가 지닌 內在的인 결함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유교는 설사 도덕이 타락해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무엇하나 갖지 못한다. 이는 三綱五倫, 仁義禮智 등 유교의 윤리는 원래적으로 先聖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왔으나 당시의 현실적 유교는 勸

10) 李敦化, 天道教創建史, 天道教中央總理院, 1939, p.47.

11) 覺來夫子之道則 一理之所定也 論其惟我之道 大同而小異也 [東經大典, 修德文]

學歌에서는 「江山求景 다던지고 人心國俗 살펴보니 父子有親·君臣有義 夫婦有別·長幼有序 朋友有信 있지마는 人心國俗 怪異하다」로 비취고 있다. 그렇다면 어찌서 孔夫子의 「가르침」이 지금에 이르도록 결실을 맺기는 커녕 「君不君 臣不臣」의 末期的 사태를 불렀으며 이렇듯 유교윤리의 非定着化를 가져왔는가? 反問하고, 이는 儒敎敎理 自体에 그 要因이 있다고 보고, 유교의 내재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은 「守心正氣」에서 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여기에 말하는 「守心正氣」는 전래적인 유교에서의 守心正氣와는 달리 이는 神靈한 마음(心)을 지키고 모든 대상에 대한 行爲인 氣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東學이 修道에서 내세운 誠·敬·信을 집약한 것으로 이를 道德歌에서

大學에 이른 道는 明明其德하여 내어 至於至善 아닐런가 中庸에 이른 말은 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요 修道之謂敎라 하여 誠敬二字 밝혀 두고 我東方 賢人達士 道德君子 이름하나 無知한 세상사람 아는 바 天地라도 敬畏之心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

[ 竜譚遺詞 道德歌 ]

라고 유교와 당시의 迷信을 한데 싸잡아 비난하면서, 유교 본래의 大學·中庸의 정신에 反하여 敬畏의 마음가짐이 없다보니 仁義禮智를 지키고 君子로서의 가르침을 따르고 五倫을 人性의 綱目으로 삼아야 할 진정한 道德的 論旨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儒敎는 이미 그 結果가

孔夫子 어진 道德 一貫으로 이름해도 三千弟子 그 가운데 身通六

芸 몇몇인고 七十二人 道通해서 前千秋 後千秋에 一貫으로 伝차  
해도 一千年 못지나서 田子方 段干木<sup>12)</sup>이 乱法乱道 하였으니

[ 竜譚遺詞 道修詞 ]

했으니, 이러한 限界性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나왔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지배 이데오로기에 대한 斯文乱賊을 각오한 선  
언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12) 田子方. 魏 文侯의 師, 段干木은 文侯의 존경을 받았으나 후일  
子夏에 쫓려 曾子, 子思를 배반 德治를 잃고 權謀術數에 빠졌  
다.

### Ⅲ. 東學教學思想의 內容과 性格

#### 1. 東學의 生成發展論的 宇宙觀

東學의 出發은 먼저 輔國安民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은 弘濟蒼生해서 同歸一體하는 佛敎적 신분제·관존민비·嫡庶差別·남존여비를 부정하는 人間平等主義라는 天人一如를 구현하는데 그 歸結을 두었다.

이러한 思想形成에 있어서 東學이 지녔던 宇宙觀은 먼저 人間을 위시하여 植物·動物界를 통털어 우주만상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모든 것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의 통일체로서 사는 것이라 보았다. 이 점 水雲은 「至」「氣」를 說明하면서

至氣란 것은 빈 靈氣가 푸르고 푸르러서 干涉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命令하지 않는 일이 없는지라 그리하여 形容이 있으되 形象할 수 없으며 들리는 듯 하되 보기는 어려운 것이니 이것은 또한 渾元한 한 덩어리 기운이니라.<sup>13)</sup>

라고 하였다. 이것을 白世明은 더욱 구체적으로 說明하기를 첫째 빈 靈氣가 푸르고 푸르다는 것은 億千萬物이 개별적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우주의 본체를 虛即氣, 氣即虛로 보았다. 即 天地의 根本

13) 曰至者 極焉之為至, 氣者 虛雲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如形而難狀 如聞而難見 是亦渾元之一氣也 [東經大典, 論學文]

은 물질도 영도 아니고 至氣의 전능력으로 발생진화하여 現象界에  
와서는 두 방면으로 진화되어 안으로는 영적인 것이 되고 밖으로  
는 물질적인 것이 된다. 들째, 어디든지 간섭하지 않는 일이없고  
명령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은 우주안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존  
재하는 모든 것은 일체가 至氣本体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째, 形  
容이 있는데 形象할 수 없으며 들을 수 있는데 볼 수 없다는 것  
은 그것을 개별적으로 떼어서는 도저히 그 근본원리를 알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東學이 說明하는 宇宙觀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물을 개별  
적으로 따로 떼어서 본다면 萬物을 단순한 物質로 보아서는 끝  
내 참된 우주를 바라볼 수 없으므로 모든 사물을 온통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또한 모든 個體生命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 마는 실제 實地<sup>14)</sup> 있어서는 완전히 本体生命과 하나로 통일되어 있  
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옛 사람들이 한울림·天地(우주)·鬼神·陰陽 등을 각각 만  
것으로 보았던 것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킨 本体生  
命的 宇宙觀<sup>14)</sup>으로 보았다.

우주의 生成·發展觀에 있어서 宇宙創造論과 宇宙發展論이 있다면,  
東學에서는 生命體는 成長하는 것으로 보아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저급에서 고급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向上 發展한다는

14) 白世明, 東學思想과 天道教, 서울: 東學社, 1956, pp.37 ~ 40.  
參照

것이다. 그래서 神(한울님)도 과거의 宗教에서는 全知全能·至仁至慈한 完全者로서 규정하였지만 東學에서는 神도 꾸준히 成長하는 發展체로 存在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生命체가 發展하는 과정에서는 낡은 것과 새것이 서로 갈아드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변화를 造化라고 하였다. 論學文에 실은 東學의 呪文인

至氣今至 願為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는 오래되면 자연히(無為而化) 낡아지고 낡은 것 속에서는 자연히 새것이 생겨서 항상 新舊가 갈아드는 相生相克의 作用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의 발전도 盛衰의 원리인 無為而化로 說明하고 있다.

먼 옛날부터 봄과 가을 갈아들고 四時의 盛하고 衰하는 것이 옮기지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것은 한울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다.<sup>15)</sup> [東經大典 布德文]

時運을 議論해도 一盛一衰 아닐런가 衰運이 至極하면 盛運이 오지 마는 賢淑한 모든 君子 同歸一體 하였던가

[竜譚遺詞 勸學歌]

15) 盖自上古以来 春秋迭代 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 天主造化之跡 昭然于天下也

우리라 무슨 八字 苦尽甘来 없을소나 興尽悲来 무섭더라 恨嘆  
말고 지내보세 [ 竜譚遺詞 安心歌 ]

라고 읊고 있다. 이러한 盛衰의 교체를 無為而化의 法則에 터하여 生命體가 자라는 자연적인 변화를 造化로 說明하였다.

그래서 天道의 原理에 의하여 우리 人間生活에 있어서도 항상 낡은 부분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方向으로 前進·發展하게 되면 다시 거기서 個體나 集團도 충실히 자라간다는 生命發展論에 터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東學의 宇宙觀은 論者에 따라서는 구구한 해석이 있겠으나 本體生命論과 生命發展論이 主旨가 되겠으며, 굳이 비교해 본다면 프뢰벨(F.W. Fröbel.)의 萬有神在論(Panetheism)이 이에 응하는 것으로 그 전개에는 차이가 없지 않으나 발상은 陰陽論의 색채가 갖든 전래적인 萬有神靈의 性向을 질게 풍기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神의 存在는 否定하고 汎神論에 터하면서도 궁극적인 본원인 「至氣」에서 나오는 陰陽의 對立·統一·轉化에 의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 2. 東學의 善惡觀과 共生論理

東學이 정의한 善惡은 아래 문답에서 그 문맥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16) 白世明, 前揭書, pp.42 ~ 50 參照.

天心이 곧 人心일진대 어찌 善惡이 있나이가

사람은 귀천이 다르고 고락이 정해져 있다고 하나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기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에 어기나니 이것이 성쇠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17)

라고 해서 合其德의 새로운 도덕기준을 밝혔다. 즉 군자는 善行하는 인격자를 일컬으며 氣運이 바르다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행위를 영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天地와 더불어 德을 이룬다는 것은 곧 자신의 利益일 뿐 아니라 전체의 이익과도 합치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만 잘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나 하늘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生命體가 成長하는 때는 성하거나 쇠약하는 상대적 작용으로 인간사회의 발전에도 貴賤의 구별이 있으나, 천한 사람도 계속 善行하고 노력하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반대의 경우 귀한 사람도 노력치 않으면 천한 사람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善惡과 利害가 相對的이면서도 併存的인 것이라면 合其德을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남도 해롭히고 자신마저 상하게 하는 惡을 行하기 보다는 나를 포

17) 曰命其人貴賤之殊 定其人苦樂之理 然而君子之德 氣有正而心有定故 與天地合其德 小人之德 氣不正而心有移故 與天地違其命 此非盛衰之理耶 [東經大典, 論學文]

함해서 남에게까지 利로움을 주는 善을 行함으로써 사람마다 높은 人格者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政治·經濟·文化에도 이 原理가 實現될 때에 비로소 平和스럽고 幸福된 地上天國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sup>18)</sup>

人性論에 있어서도 人間의 바탕은 性善이나 性惡이라는 극단적인 선입관이나 等分에서 說明을 구하지 않았다. 善惡의 기준이나 그 결과는 不變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即可變的 可能性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善行이라는 행위가 무조건 자기희생이나 절대자에의 봉사라는 입장보다는 善한 행위의 출발이 사실은 他人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강한 說得力으로 임하고 있다.

### 3. 東學의 人間平等 定立論

사람을 하늘과 같이 높여 섬겨야 한다는 事人如天은 서로가 하늘과 같이 높일 때 비로소 봉건윤리에서 굳어진 人間差別에서 民主的인 平等한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侍」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論學文]이다. 人

18) 白世明, 前揭書, pp. 115 ~ 116. 參照.

間關係라는 것이 男女·長幼·貴賤에 따라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事人如天함을 生活化해야 한다고 하였다.

辛未說法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道는 먼저 待人接物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사람을 待하는데서 世上을 氣化할 수 있고 物件을 接하는데서 天地自然의 理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萬有를 대하는 데는 공경스러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대개 人間의 죄악은 대부분 사람간에 서로가 위하고 존경하는 원만한 관계가 부족하거나 파괴됨으로써 비롯되는 것이다. 즉 평등적·인격적 인간관계가 아닌 主從的·억압적·차별적·수직적 관계에서는 갈등·증오·분열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사람마다 스스로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그것은 바로 事人如天의 人格主義社會가 이루어지는 터전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가 하늘(한울님)을 모시고 있듯이 다른 사람을 또한 하늘로 모시(待)는 곳에 비로소 진정한 나와 당신의 만남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 사람을 하늘로 대하는 人乃天의 마음가짐이 자리하는 것이다.

만약 오늘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人間教育의 回復이요 확인이며 강화라고 할 것이다. 이 점 崔海月의 法說 十母天의 內容은 한울의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어 읽는다면 곧 人間尊重思想의 集約을 옮긴 것이 된다.

一. 사람을 속이지 마라. (母 欺天)

- 二. 사람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毋 慢天)
- 三.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 (毋 傷天)
- 四. 사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毋 亂天)
- 五. 사람을 요사스럽게 하지 말라. (毋 夭天)
- 六. 사람을 더럽히지 말라. (毋 汚天)
- 七. 사람을 주리게 하지 말라. (毋 餓天)
- 八. 사람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毋 壞天)
- 九. 사람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毋 厭天)
- 十. 사람을 굽히게 (屈) 하지 말라. (毋 屈天)

[ 海月神師法論, 十八, 十毋天 ]

위 戒律에서는 무엇보다도 人間에 대한 신뢰, 畏敬의 念이 없이는 참다운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짚을 것 없이 人間을 다루는 기본적인 명제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몇 천 단어의 장황한 설명보다 교육의 출발과 귀착은 인간에게 시작되고 인간에서 끝나야 한다는 근본적인 명제를 東學思想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부족됨이 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4. 東學의 地上天國 創造論

東學은 神을 전제하면서도 來世에 있어서의 지옥이나 천국을 設定하지 않았다. 이른 바 순환의 논리에 의하여 代天者인 聖賢이 개재했던 先天의 時代였던 下元甲이 지나고 닥아오는 後天의 時代

上元甲은 天靈의 직접 降臨에 의해서 億兆蒼生이 모두 神仙이 되는 地上天國인 後天開闢이 實現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당시의 봉건적 질곡에 헤메는 民衆들에게 현실부정을 통한 구원의 미래를 약속하였다. 그러한 믿음을 二十一字 呪文에 담았으며 그 呪文을 풀이하는 매듭에서

그러므로 밝고 밝은 한울님의 덕을 늘 생각하여 잊지 아니하면 「至氣」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게 되나니라.<sup>19)</sup>

시킨대로 施行해서 次次 가르치면 無窮造化 다 던지고 布德天下 할 것이니

次第道法 그뿐일세 法을 정코 글을 지어

入道한 세상 사람 그 날부터 君子되어

無為而化 될 것이니. 地上神仙 네 아니나

[ 竜譚遺詞 教訓歌 ]

라고 해서 呪文이 가르치는 德을 꾸준히 닦으면 우주의 본원인 至氣에 이르러 至聖(神仙)이 될 수 있다는 啓示와 신념을 구체적으로 심어 준 것이다.

下元甲 지내거던 上元甲 好時節에 萬古없는 無極大道 이 세상에 날 것이니

19) 故 明明其德 念念不忘則 至化至氣 至於至聖 [ 東經大典 論學文 ]

너는 또한 年淺해서 億兆蒼生 많은 사람

泰平曲 擊攘歌를 不久에 볼 것이니 이 세상 無極大道 永世無窮

아닐런가

[ 竜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

하고 도처에서 地上天國의 도래와 그 實現을 약속하였다. 말하자면 東學은 人間을 초월적인 神에 종속시키기 보다는 초월적 존재를 현세와 인간의 내적 세계에 포용하면서 뚜렷한 자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세적 인간상에서 근대적 인간상으로의 전이를 뜻하고 있다.

그러한 無爲而化나 地上神仙의 기약이 다만 미신이나 幻想에서 구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修行인 內省法에 의한 「道」의 인식능력으로서 도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明」의 소재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東經大典 「八節」은 東學이 혁명의 원리가 아닌 도덕주의에 터전한 철저한 教化의 원리에서 無爲而化를 추구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기에

밝음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

덕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 몸의 화해난 것을 헤아리라.  
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의 밝고 밝음을 돌아보라.

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나의 믿음이 한결 같은가 헤아리라.

정성이 이뤄지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잃지 않았나  
헤아리라.

공경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잠깐이라도 모양함을 늦추지  
말라.

두려움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생각을 지극히 공변되게 하  
여 사사로움이 없게 하라.

마음의 얻고 잃음을 알지 못하거든 마음쓰는 곳에 공과 사를  
살피라.<sup>20)</sup>

밝음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  
덕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말하고자 하나 넓어서 말하기  
어려우니라.

명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주고 받는 이치가 아득하니라.  
도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사람)가 나(한울)를 위하  
는 것이오 다른 것이 아니니라.

정성이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은 자나깨나 두려워  
하라.

두려움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죄 없는 곳에서 죄 있는  
것 같이하라.

20) 不知明之所在 遠不求而修我 不知德之所在 料吾身之化生  
不知命之所在 願吾心之明明 不知道之所在 度吾信之一如  
不知誠之所致 數吾心之不共 不知敬之所為 暫不弛於慕仰  
不知畏之所謂 念至公之無私 不知心之得失 察用處之公私

[東經大典, 前八節]

마음의 언고 잃음을 알지 못하거든 오늘에 있어 어제의 그름을  
생각하라.<sup>21)</sup>

東學이 초기에 우매한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布教와 전도과정에서는 미신적 주술적인 요소가 활용되거나 동원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人間의 내성적인 수행에 의한 자아 확립과 구제에로 유도한 前後 八項目에서 집약한 「修我」의 본질인 「明德命道」를 터득하는 데서 진정한 無為而化는 기약된다는 철저한 수련에 의한 理想世界의 實現觀이었다. 이 점 朴晶東은 「明」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길

明是自內而發射 故明者 必有光源也 我是向他而對立 遠不求而修我

[ 東學經義 ]

로 정의하고 있다. 동학이 설명했던 一元論的 宇宙觀은 앞서 보았듯이 靜態的이기보다 陰陽五行說에 의한 음양의 상호전환, 五行의相生相克에 의한 動態的인 것이다. 그런데 동학의 순환논리는 반복적이거나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른바 後天開闢에 의한 地上天國이란 先天時代의 극복으로서의 새로운 時代 새로운 世界를 뜻했

21) 不知明之所在 送余心於其地 不知德之所在 欲言浩而難言  
不知命之所在 理查然於授受 不知道之所在 我為我而非他  
不知誠之所致 是自知而自怠 不知敬之所為 恐吾心之寤寐  
不知畏之所為 無罪地而如罪 不知心之得失 在今思而昨非

[ 東經大典, 後八節 ]

던 것이다.

이러한 論理는 사물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진보한다는 전제에서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동학이 단순히 관념적·환상적 미래관을 제시했다기보다 그 내면은 본질적으로 道德主義的 敎化의 원리와 의지에서 理想世界를 기약했음을 알 수 있다.

## IV. 東學의 組織과 教育實際

### 1. 東學의 組織

무릇 어떠한 宗教集團이나 특정한 敎學의 理念을 전파·보급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先知者로서의 창도자의 사상과 생애도 소중하지만 그러한 복음이나 「진리의 말씀」을 계승·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유효적절한 제도나 조직이라는 그릇이 마련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그 敎勢는 크게 좌우되었음을 보아왔다.

기독교가 오랜 박해 속에서도 끈질기게 그 생명을 이어가면서 승화될 수 있었던 배경도 결국 초기 敎회의 조직을 무시하고는 說明되기 어려운 것이다. 동학은 박해의 時期에서부터 天道敎로 개칭되도록까지 그 時代에 적응한 독특한 조직체계를 지녀왔고 발전시켜 나갔다.

초대 敎조인 水雲은 東學을 창도한 1860年 4月 5日부터 1905年 11月 31日까지 45年間은 속인제(屬人制)가 주축이 되었다. 敎조 때에는 여러 곳에 接所를 두어 接主가 敎化와 布德을 행하였다.

속인제에는 接主制와 包制 그리고 淵源制가 있는데 이는 東學初期에 集團的인 機關을 갖지 못하였을 때 地域의 책임자를 정해 그 지역의 敎인을 소속시켰던 제도이다.

그러다 2세 敎조인 海月 崔時亨(1829~98)에 와서는 敎세가 三南地方 뿐아니라 중부지방까지 확장되어 그 규모가 크게 불

어났으므로 종전의 接主制度만으로는 통솔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단위적 속인제인 包制가 接所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包制는 대체로 道·郡·面·里 단위의 비슷한 체제였다. 각 包에는 일개 道内の 교인을 통괄 교화하는 大接主를 두고 郡을 통괄·교화하는 首接王, 面을 담당하는 接主, 里洞을 담당하는 接司를 두어 교인의 종적인 연계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1884年부터는 包制와 더불어 教化를 전담하는 六任制를 두었는데, 이 조직은 教長·教授·都執·執綱·大正·中正으로 분류하고 그 주어진 소임을 나누어 맡도록 했다.

이러한 六任制는 1884年 11月 海月이 孫秉熙 및 15名의 도제와 함께 益山の 迦葉寺에서 49일간의 수도를 마친 다음 六任制를 정하였는데 그 降書에는 六任의 위계에 따른 자격구비를 아래와 같이 들었다.

教長, 건실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教授, 성심으로 도를 닦아 가히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道執, 위풍이 있고 기강이 밝고 經界를 아는 사람

執綱,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大正, 공평하며 無私하고 勤厚한 사람

中正, 직언을 할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을 정하여 교인들의 교화와 기강을 바로 잡으며 교인들의 지도자로서 수범이 되게 한다.

이러한 包制와 六任制는 초대 교조 伸寃운동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단한 소임을 다했으며 甲午東學運動을 일

사분란하게 추진하는 토대가 되었다.

동학농민전쟁때 各包의 大接主가 대장이 되었고 六任 담당자들이 동원되어 농민군의 교화를 맡았기에 당시 농민군의 규율이 바르고 사기가 드높았음은 이들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전한다.

그 이외에도 카톨릭의 代父 代母制와 비교될 수 있는 聯臂制를 두었는데 이는 동학에 入道시킨 伝道人을 薦主라 하고 入道한 受道人을 被薦人이라 하였으며 代父나 代母가 되는 天主를 聯臂人으로 불렀다. 이 制度는 天道教 時代に 와서 폐지되고 그 代身 淵源制로 대체되었다.<sup>22)</sup>

동학사상의 생명화에는 이렇듯 뛰어난 조직원리와 운영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 안 될 것이다. 흔히 우리민족이 조직에는 약하다는 선입관이나 편견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상황에서의 결과이지, 동기부여나 그 지향하는 방향이 뚜렷할 때에는 누구에 못지 않게 조직성이 강함을 동학이나 후일의 天道教의 活動과 그 業績에 비추어 알 수 있다.

## 2. 東學의 教育內容과 方法論

### 1) 修德原理

대개 宗教의 修練에 있어서는 呪文의 암송을 통한 정신집중

22) 崔東熙 外共著, 天道教, 裡里: 円光大 宗教問題研究所, 1976, pp. 268 ~ 274. 參照.

과 일체화, 그 宗團이 요구하는 제반 제율을 준수하는 생활상의 精進이나 淨化가 요청된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러한 수련과정에 있어서 이치를 깊이 생각치 않는 呪文의 맹목적·습관적 암송이나, 반대로 이치만 따지거나 생각하면서 呪文을 경건히 송독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진실한 신앙 수련생활에서는 위 두가지를 절충하면서 慕仰하는 마음가짐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修練과 思索 두 가지가 온전할 때 배움이나 닦음에 참다운 나아감이 있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학습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東學의 呪文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東學의 呪文

至氣今至 願為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는 「至氣」와 「侍天主」가 그 핵심이 되고 있다.

「至氣」는 靈妙한 혼원의 기로서 이는 형상 이전의 순수한 一氣를 뜻한다. 今至는 지금 入道하여 지극한 기와 接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며, 願為는 즉 請祝인 바라고 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오늘의 말로 바꾸면 「至極한 기가 지금 修道하고 있는 저에게 충분히 내려 저에게 化합하기를 바랍니다」로 풀이된다.

이어서 「侍天主」의 侍는 안으로 神靈이 있고 밖으로 氣化가 있으며 각자가 깨달아서 마음 속에 꼭 간직하는 것( 內有神靈 外有氣化 各知不移)으로 해석된다. 卽 至氣가 저에게 내리기를 바라

며 「造化定」의 한울님의 거룩한 德(造化)이 저절로 体得되어, 永世不忘은 죽을 때까지 잊지않고 늘 생각하며, 萬事知는 모든 일이 저절로 覺得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東學 呪文을 現代語로 옮긴다면

「한울님을 모시면 그 놀라운 德(造化)이 저절로 体得되고 한울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 집니다」

「至氣가 지금 저에게 충분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가 한울님을 모시면 그 놀라운 德이 体得되고 한울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萬事가 환히 깨달아 집니다」라는 풀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東學의 呪文은 미신이나 주술적인 뜻에서의 주문이 아니라 바로 한울님을 진심으로 위하겠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祈禱文이라고 하겠다.<sup>23)</sup>

어느 종교없이 입교자에게는 기도문을 외는 일은 필수적인 구비조건이며 入教한 뒤에도 정성껏 口誦하는 것을 日課로 요구하고 있다.

東學도 초기에는 교인들에게 주문을 降靈之文으로 믿게 하여 造化나 靈符같은 것을 얻는 것으로 믿게 한 바 있었다. 그러나 後期에 올수록 신앙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한울님에 대한 至誠은 情操이며 呪文을 반복 암송하는 과정에서 그 內容을 음미하고 思惟하고 거기따라 行爲하도록 요청하였다.

23) 崔東熙, 東學의 呪文에 대하여 [前掲, 韓國思想Ⅲ], pp.204 ~ 207. 參照.

이러한 呪文을 口誦시킨 이유는 宗教的 修行上의 효과이외에 또 布教上의 효과도 함께 노렸다. 동학신도 스스로가 주문을 자신있게 구송한다는 것은 道人임을 자처하는 것이며 신앙의 적극적인 행동화가 가능했고 여기에서 教友로서의 공동체적 의식도 보다 긴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점 東學도 초기 교조의 得道 내용은 呪術的 物質的인 결과를 기대시킨 흔적을 짙게 남기고 있다. 이를테면 安心歌 내용 가운데

한울님	하신 말씀
知覺없는	人生들아
三神山	不死藥을
사람마다	볼까보냐
未練한	이인생아
네가다시	그려내서
그릇안에	살라두고
冷水一盃	떠다가서
一張吞服	하엿어라
이 말씀	들은후에
바삐한장	그려내어
물에타서	먹어보니
無腥無臭	맛이없고
無滋味之	特心이라
그려저럭	먹은부가

수백장이 되었더라  
 七八朔 지내나니  
 가는몸이 굶어지고  
 검은낮이 희어지네  
 어화세상 사람들아  
 仙風道骨 내아닌가  
 좋을시구 좋을시구  
 不老不死 하단말가

[ 竜潭遺詞 安心歌 ]

이는 東學에의 유안동기를 不老不死나 靈符에 질게 관련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일반 邪教가 빠지기 쉬운 즉시적·利己的 祈願·祈福의 誣民하는 미끼가 아님을 水雲은 밝히고 있다.

나도 그 말씀에 느껴어 그 영부를 받아 그리어 먹은즉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낫는지라. 바야흐로 선약인줄 알았노라. 이에 이르러 병난 사람에게 썩 보니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로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니 정성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한울님」을 위한 사람은 병이 낫고 도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아니겠는가<sup>24)</sup>

24) 吾亦感其言 受其符 書以吞服則 潤身差病 方乃知仙藥矣 到此用病 則 或有差不差故 莫知其端 察其所然則 誠之又誠 至為天主者 每 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

[ 東經大典 布德文 ]

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誠敬에 따라서 靈符에서 표현된 그러한 효과를 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동학이 종교적인 궁극적 목적을 정신적인 자각이나 覺得에 두었음을 뜻한다. 「道德成立」은 君子에의 기약에 있으나 여기서 君子의 개념은 종래의 개념과는 달리 한울님의 道와 한울님의 德을 覺得·體現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修道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이나 배움에 있어서의 주체는 그 시작과 마무리가 말할나위 없이 학습자인나(我)에 있는 것이며, 스스로를 覺得시키고 그 소임을 認知한다면 배움의 길은 곧장 열리는 것으로 보겠다. 내가 곧 한울이라는 것을 覺得한 者는 올바른 自己定着이 가능하지만 기운이 바르지 못하거나 마음에 번덕이 있게 되면 끝에 가서는 天命을 어기게 된다. 그래서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定(安全)하면 천덕에 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道를 이루고 못 이루고는 결과적으로 기운과 마음의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수도에 임해서 주문의 구송과 더불어 실천되어야 할 사항을 修道文은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이오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니라 한번 입도식을 지내는 것은 한울님을 기리 모시겠다는 중한 맹서요 모든 의심을 깨쳐 버리는 것은 정성을 지킨 까닭이니라. 의관을 바로 갖추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요 길에서

먹으며 뒷짐지는 것은 천한 사람의 버릇이니라.

도인 집 가정에서 먹지 아니 할 것은 한 네발짐승의 나쁜 고  
기요 몸에 해로운 것은 또한 찬 물에 갑자기 앉는 것이니라.

유부녀를 막는 것은 나라 법으로도 금하는 것이오 누워서 큰  
소리로 주문 외우는 것은 나의 정성된 도에 태만함이니라.

그렇듯이 펴니 이것이 법칙이 되나니라.<sup>25)</sup>

수도에 임해서 기본적으로 실천·준수해야 할 사항은 모든 疑惑  
을 털어버리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먼저 차림을 단정하게 해서  
君子답도록 바른 몸가짐을 지니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거  
나 뒷짐지는 등속의 천한 짓은 안된다. 깨끗하지 못한 짐승의 고  
기는 먹지 말며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따위 무리한 짓은 몸을  
해치는 것이다. 國家에서도 금하고 있듯이 有夫女를 범해서는 안  
되며, 누워서 주문을 소리 높여 외우는 것과 같은 태만한 짓을 해  
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禁忌事項은 日常的인 社会倫理的인 것도 있으며, 개인생활  
이나 청결을 위하여 지키도록 한 실천사항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5) 仁義禮智 先聖之所教 守心正氣 惟我之更定 一番致祭 永侍之重盟  
萬惑罷去 守誠之故也 衣冠整齊 君子之行 路食手後 賤夫之事  
道家外食 一四足之惡肉 陽身所害 又寒泉之急坐 有夫女之防塞  
國大典之所禁 臥高声之誦呪 我誠道之太慢 然而肆之 是為之則

[ 東經大典, 修德文 ]

이렇듯 비근한 日常事에서부터 자신을 올바르게 닦아 나가고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방법과 절차로 明德命道하고 誠敬畏心하는 자신의 확인 방법 8 가지를 비롯한 수도의 기본을 海月은 더욱 구체적으로 들었다.

주문을 외우고 이치를 생각치 않아도 옳지 않고, 이치만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옳지 않으니 두가지를 겸절하여 잠깐이라도 모양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는 것이 어떠할꼬

내가 곧 한울이요 한울이 곧 나니 나와 한울은 도시 하나니라. 그러나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변덕이 있으므로 천명을 어기고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하므로 천덕에 합하나니 도를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전부 기운과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데 있는 것이니라.

「明德命道」 네 글자는 한울과 사람이 현상을 이룬 근본이요 「誠敬畏心」 네 글자는 물건(물)을 이룬 뒤에 다시 갓난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노정(程)의 절차나 자세해 八節을 살피는 것이 어떠할꼬

- 一.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 (遠不求而修我)
- 二. 내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 (送余心於其地)
- 三. 내 마음의 밝고 밝음을 돌아보라. (顯吾心之明)
- 四. 내 몸의 화생하는 것을 헤아리라. (料吾身之化生)
- 五. 말하고자 하나 넓어서 말하기 어렵다. (欲言浩而難言)

六. 이치를 주고 받음이 아득하다. (理查然於授受)

七. 내가 나를 위한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다. (我為我而非他)

八. 나의 믿음이 한결같은가 헤아리라. (度吾信之一如)

한 것도 나니(我也) 어찌 다른 한울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한울사람아라」한 것이다.

그러면 나와 한울이 도시 한 기운 한 몸이라 물욕을 제거하고 도리를 터득하면 지극히 化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는 것이 도무지 나이나라.

「誠敬畏心」과 「待人接物」은 모든 일에 한울이니 지기와 지극히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는 절차 노정기(路程)이니라.

이것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니요 또한 내 말이 노망이 아니라 오직 스승께서 가르치신 것이니 여러분은 밝게 가늠하고 힘써 행하여 참된 한울을 실천하여 한가지로 大道 이루기를 크게 원하노라.

이 또한 八節을 강화로 해석한 것이니 범연히 지내지 말고 더욱 힘써 수련을 실천·이행하는 것이 어떠할꼬 26)

장황한 감이 없지 않으나 동학의 수도의 기본정신을 담은 內容이기에 그대로 인용해 보았다. 특히 八節에서 각 절의 결론과 종합 결론에서 모두 나니(我也) 나 밖에 어찌 다른 하늘이 있겠는가(我外豈有他天乎) 하고 자문자답하고 있다. 이는 수련에 있

26) 海月神師法說, 修道法

에 있지 않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당시 오래 내려져 온 身分觀念으로 각별하게 地廻가 낮으면 여간해서는 敬意를 표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서도 水雲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을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존경해야 할 것을 설파하였다.

海月の 法說 가운데 事人如天에 관한 것을 추려 보아도 그가 올바른 侍人觀을 심어주기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一. 道는 먼저 侍人接物에서 시작되나니 사람을 侍하는 데서 世上을 氣化할 수 있고 物件을 接하는 데서 天地自然의 理致를 깨달을 수 있나니라. [辛未說法]

一. 道는 高遠難行한 것이 아니라 日用行사가 道 아닌 것이 없나니 天地神明이 萬物과 함께 推移하는지라 諸君은 敬人敬物의 原理를 삼가 實踐할 것이니라. [癸未說法]

一. 道家에 손님이 오시거든 한을님께서 降臨한 것으로 省覺하라.  
[乙酉說法]

一. 남을 是非하지 말라. 남을 是非하는 것은 하나님을 是非하는 것이니라. [內修德文]

東學은 人乃天·事人如天·侍天主에서 상징되고 있듯이 現在까지의 수직적·종속적·主從的 人間觀을 平等的·垂平的인 人間관계로 고쳤다. 여기서 인간상호의 존경과 신뢰·사랑에 터한 진정한 人間회복과 사회재건을 기하자는 것이 그 思想의 核心이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東學에서는 한 때 「절로 된다」는 말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生命發展의 법칙인 無爲而化가 저절로 된다는 뜻과 東學 道人間에는 老少間 師弟間에도 스승이 제자를 보고도 절하는 서로 높여서 공경하는 그러한 절(敬禮) 때문에 된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서로 경례를 잘하기 때문에 「절로 된다」는 것은 경례는 예법의 기본이며 윤리의 중심인 것이다. 물론 종래에도 경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례의 형태는 같다고 해도 지난날의 차별윤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높여 공경하는 육체적 동작의 표시로서 서로의 主從이나 從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행위절차이기 쉬웠다.

東學의 事人如天의 새 윤리에 있어서 경례는 받는 자와 올리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서로가 상대방을 공경하는 동기에서 행해지는 평등윤리의 확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 걸음 나아가서 악한 자를 바로 이끄는 경우에도 그저 악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道가 바르면 저 사람도 스스로 바르게 할 것이니 어느 겨를에 시비곡절을 가리고 장단을 비교하겠는가 (惡人 莫如善待 吾道正則 彼必自正矣 幾暇 較其曲直 長短哉) 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남의 눈

속의 티끌보다 내 눈 속의 들보에 마음을 써야 할 것과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스스로가 겸양의 덕을 세우는 것이 근본(謙讓立德之本)이라고 하여 간단없는 自我精進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무릇 人間關係란 한마디로 정직이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거짓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진실을 어지럽히고 인간관계를 흐리게 하여 참된 이치마저 거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욕을 참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스스로 책하면서 속을 살피는데 주를 삼고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 (待人之時 忍辱寬怒 自責內省為主 非人勿直) 것을 일상생활의 신조로 삼도록 했다.

끝으로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닐 것인가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셔야 (孰非我長 孰非我師 吾雖婦人小兒之言 可學而可師也)<sup>27)</sup> 한다는 배움에 임해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을 가르쳤다.

27)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 3) 修練課程

대체로 수련에 임해서 道를 닦을 때 道의 취지를 몰라 방황하는 경우와, 道를 닦는데도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되지 않는다고 당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진리를 터득하자면 먼저 나의 마음가짐 (心柱)을 굳건히 하여야 참 뜻을 알 것이요, 한결같은 생각이 이에 있으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될 것으로<sup>28)</sup> 내 생각과 하늘의 뜻이 어긋나지 않게 되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끌어 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教導方法의 요체는 가르침을 따라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닦아 나가면 자연히 모든 것이 함께 자라면서 無為而化의 법칙에 의하여 새로운 인격이 자라고 낡은 인격은 차츰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마치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자라다가 완전히 다 자랐을 때에는 겹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한울님)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無極大道의 수련에 의하여 도달될 수 있는 경지임을 道德詞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며 그 한 구절을 보면,

正心修身 하온 후에  
남과 같이 修道하소  
대저 世上 心道中에

28) 固我心柱 乃知道味一念在茲 萬事如意 「東經大典, 嘆道儒心急」

속의 티끌보다 내 눈 속의 들보에 마음을 써야 할 것과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스스로가 겸양의 덕을 세우는 것이 근본(謙讓立德之本)이라고 하여 간단없는 自我精進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무릇 人間關係란 한마디로 정직이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거짓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진실을 어지럽히고 인간관계를 흐리게 하여 참된 이치마저 거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욕을 참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스스로 책하면서 속을 살피는데 주를 삼고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 (侍人之時 忍辱寬怒 自責內省為主 非人勿直) 것을 일상생활의 신조로 삼도록 했다.

끝으로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닐 것인가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셔야 (孰非我長 孰非我師 吾雖婦人小兒之言 可學而可師也)<sup>27)</sup> 한다는 배움에 임해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을 가르쳤다.

27)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 3) 修練課程

대체로 수련에 임해서 道를 닦을 때 도의 취지를 몰라 방황하는 경우와, 도를 닦는데도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되지 않는다고 당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진리를 터득하자면 먼저 나의 마음가짐 (心柱)을 굳건히 하여야 참 뜻을 알 것이요, 한결같은 생각이 이에 있으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될 것으로<sup>28)</sup> 내 생각과 하늘의 뜻이 어긋나지 않게 되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끌어 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教導方法의 요체는 가르침을 따라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닦아 나가면 자연히 모든 것이 함께 자라면서 無為而化의 법칙에 의하여 새로운 인격이 자라고 낡은 인격은 차츰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마치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자라다가 완전히 다 자랐을 때에는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한울님)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無極大道의 수련에 의하여 도달될 수 있는 경지임을 道德詞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며 그 한 구절을 보면,

正心修身 하온 후에  
남과 같이 修道하소  
대저 世上 心道中에

28) 固我心柱 乃知道味一念在茲 萬事如意 「東經大典, 嘆道儒心急」

믿을 信자 主張일세  
 大戈夫 義氣凡節  
 信 없으면 어디 나며  
 三綱五倫 밝은 法은  
 禮 없으면 어디 나며  
 大丈夫 智慧凡節  
 廉恥中에 있었으니  
 우습다 저사람은  
 自拋自棄 모르고서  
 冒沒廉恥 作亂하니  
 이는 역시 亂道者요  
 師長못한 次第道法  
 저 혼자 알았으니  
 이는 역시 亂道者라  
 亂法亂道 하는 사람  
 날 볼 낮이 무엇인고  
 이 같이 아니말면  
 제 身數 可憐하고  
 이 내 道 더럽히니  
 晝宵間 하는 걱정  
 이 밖에 다시 없다  
 作心으로 不變하면  
 乃成君子 아닐런가  
 句句字字 살펴내어  
 正心修道 하여주면  
 春三月 好時節에

또 다시 만나볼까

라고 해서 수련에 있어서의 경건한 자세와 정신集中이라는 인격도  
야의 터전 위에 비로소 진리와 깨달음에 접할 수 있음을 타이르  
고 경제한 것이다.

위와같은 전제아래 마련된 자기수련 방법 가운데 東學이 종교적  
의식으로 준수했던 心告法은 독특한 것이었다. 心告에는 通常心告  
와 儀式心告가 있었는데 通常心告는 식사(食告) 출입시(出入告)  
와 같은 무슨 일이나 시작과 마칠때 한울님에게 發願하고 감사하  
는 것이며 儀式心告는 9時 清水·侍日式 등 각종의식에 올리는 心  
告이다. 식사할 때, 잠잘 때, 출입할 때, 모든 일에 임할 때마다  
반듯이 마음 속에 告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치 지난 날 법도 있는 가정에서는 으레껏 그랬듯이 자녀가 부  
모나 조부모 윗어른에 대하여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  
셨습니까” (昏定而晨省) 하였듯이 이것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자신이 모시고 있는 한울님에게 공손하게 야되는 것  
일 뿐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서 몸매무새를 고치고  
마음가짐을 바로 하려는 것과 같았다. 또 항상 “어디 다녀 오  
겠습니다” “어디 다녀 왔습니다” (出必告反必面) 라고 하였으며  
밖에서 누가 찾아 왔을때도 일단 한울님이 오셨다는 마음가짐으로  
맞이 하라고 하였다. 이 心告의 뜻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구체  
화시켜서 現實我를 本然我로서의 발전적·창조적인 自我로 성장시키  
는 수련이며 完成된 自我로의 지향을 맹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水雲은 자신의 생활이 남아지지 않도록 自省하는 戒銘으로 정성이란 무엇이냐(不知誠之所致)의 물음에 대해서 먼저 나의 마음이 잃어지지 않는 것을 헤아려 볼 것(數吾心之不共)을 들었다. 海月도 이 점 독실하게 공부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며(篤工而不成者 未之有也)

우물을 판 뒤에야 물을 마실 것이오 밭을 간 뒤에야 밥을 먹을 것이니 사람이 마음공부하는 것이 물마시고 밥먹는 일과 같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무릇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도 반드시 밭 한 이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오, 많은 재물도 한 저자에서부터 되는 것이오, 덕이 백제를 빛나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sup>29)</sup> 고 하여 수련에 임해서의 본질과 그 핵심 그것을 이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 4) 經典과 歌辭

東學의 出發이 당시 억압받았던 민중의 처지에서 의 廣濟蒼生을 표방한 것이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따라서 동학의 경전은 당시 지식층을 상대로 한 한문경전과 더불어 無學의 하층민중·부녀자를 의식해서 순 한글을 써서 平俗한 글체로 풀이하거나 布教歌를 만들었다는 것은 동학의 서민

29) 鑿井以後 飲 耕田以後 食人之學 不如飲食之業乎  
 穀貯千倉 必自一畝 財取萬貫 必自一市 德潤百體 必自一心  
 [ 海月神師法說 篤工 ]

적 성격이 강렬히 표출되고 있다.

특히 水雲의 「龍潭遺詞」를 비롯하여 동학의 교리를 담은 이들 가사의 공통성은 그 문장이나 서술방법의 서민성에 있다고 보겠다.

이 시대 서민문학의 취향이었던 문장 서술에서 주로 反復法과 連鎖法을 즐겨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동학가사도

국호는 조선이오 읍호는 경주로다  
성호는 월성이오 수명은 汶水로다  
기자후 왕도로서 일천년 아닐런가  
東都는 故국이요 한양은 新府로다  
아동방 생긴 후에 이런왕도 또 있는가  
水勢도 좋거니와 山氣도 좋을시고 .....

나도 또한 신선이래 飛上天 한다해도  
이내 선경 구미용담 다시보기 어렵도다  
천만년 지내온들 아니 잊자 맹서해도  
무심한 구미용담 평지되기 애달하다.

[용담유사 용담가]

천지음양 조판후에 백천만물 화해나서  
지우자 금수요 최령자 사람이라  
전해오는 세상말이 천의인심 같다하고  
대정수 주역괘에 난측자는 귀신이오  
대학에 이룬도는 명명기덕 하여내어  
.....

이 세상 인심으로 물욕 제거 하여내어  
 개과천선 되었으니 성경이자 못지킬까  
 일일이 못본사람 상상지회 없을소나  
 두어 귀 인문가사 들은듯이 외어내어  
 정심수도 하온후에 잊지 말고 생각하소  
 [ 용담유사 도덕가 ]

동학의 가사가 이렇듯 반복과 連鎖式 표현을 즐겨 쓴 것은 당시의 서민문학의 文體 형식에서도 영향을 받았겠으나 布教의 목적에는 줄줄 외어나갈 수 있는 口誦이라야만 반복과 리듬에 맞춘 伝誦의 效果가 컸을 것이다.

또한 가사를 서민들이 口誦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이거나 흥겹고 친근감을 주는 각설이식으로 풀어 나가는 유형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사형식은 壬丙兩亂을 겪은 후 사회적 신분변동이 생기어 서민 계층의 형성에서 引導된 현상인 것이다. 아직까지 서민층은 자기네 情感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文學樣式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既存한 형식을 빌려 그들의 情感을 토로했던 것이다. 이에 선택된 既存形式이 바로 歌辭인 것이다. 그 까닭은 가사란 본래 한국 전래의 전통적 가락으로 숨은 律文으로서 그 律調가 단조롭고 長短에 제한이 없는 連續體요 또한 敘事性이 짙은 장르였기 때문이다.

李朝 後期 서민들의 性情이 담긴 서민가사는 주로 務實力行의 主潮속에 父母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友愛하고 친척간에 돈독하

는 小市民的 理想追求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小市民的 理想追求와 務実力行한 現世적 서민정신은 정신적인 해탈보다는 물질적 安全을 바랐던 것이요, 실현하기 어려운 화려한 理想보다는 현실적 만족이 더 필요했던 바이다. 이러한 時代的 요청 속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後天開闢 밑에 地上天國思想을 가진 崔濟愚의 東學이요, 그 東學의 요체를 한글로 지어 만든 것이 龍譚遺詞인 것이다. 이 歌辭 卽 응답유사는 傳來하는 封建的 庶民意識의 바탕과 근대적 자각정신이 內包되어 있다는 것이 그 시대적 文學史의 가치를 갖게 한다<sup>30)</sup> 고 풀이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응답유사에 대한 평가는 1860年代 봉건조선이 당면한 對內外的 모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把握하여 개화기 憂國歌辭의 出發로서 높이 평가했으며(趙東一, 開化期憂國歌辭) 반침략과 반봉건의 민족혁명을 노래한 19C 최대의 시가로 평가(金仁煥, 龍譚遺詞의 內容分析) 하기도<sup>31)</sup> 한다.

어느 종교에도 지켜야 될 준칙이 있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經典工夫가 될 것이다. 경전낭독은 敎祖의 가르침을 터득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전이 지닌 참 뜻을 아는데 努力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동학경전을 동학의 기본 교과서류로 보고 각 편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30) 柳鐸一, 東學敎와 그 歌辭 [韓國語文論叢, 又村 姜馥樹博士 回甲紀念論文集, 1976], P.567

31) 鄭亨愚, 東學歌辭 I,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P.ii

(1) 東經大典과 龍潭遺詞

이 경전은 水雲이 20여년간의 求道과정에서 얻게 된 종교적 성찰과 각득,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포착한 1860年에서 64年에 걸쳐 저술된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 교리인 布德文 525字, 論學文 1338字, 修道文 1050字, 不然其然 523字, 歡道儒心急 174字, 筆法 및 前後八節 각 192字를 비롯해서 祝文·詠宵 등 7000여자의 한자로 東經大典이 간략 평이하게 진리를 파악토록 서술되어 있다.

龍潭遺詞는 대중을 상대로 저술된 「용담유사」의 한글체 가사가 있으며 이는 72구절의 용담가, 145 구절의 안심가(安心歌), 227구절의 교훈가, 85구절의 전학가, 68구절의 도덕가, 93구절의 흥비가(興比歌) 등 8편으로 전형적 가사체이다. 이 글은 동경대전과 마찬가지로 근본적 교리를 설명하는 데는 다를 바 없으나 상층부인 지도층이나 지식층에게 한문체를 쓴데 비해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글로 기술했다는 차이 뿐이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동학형성시기의 독특한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종교적인 신앙보다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내용들이 강조되었다. 이는 동학에서도 政教는 동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또한 이 경전에서는 性身雙全 인간의 본래적 특성한 性靈과 肉身이 더불어 온전해야 한다는 점과 소중한 것은 그 스스로이며 인간존중의 진리에서 민족과 국가도 나의 것이

라는一體感에서 비로소 自己省察을 통한 무한한 새 역사 창조에 있어서의 과업을 설파했다.

### (2) 布德文

1861년에 지은 글로서 德을 편다는 것을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비교 대조하면서 교조의 得道과정을 소상히 적고 있다. 동학의 진리발견은 교조의 개인적인 동기가 아니라 도탄에 빠진 백성과 말세적인 세상과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제하기 위한 정성과 염원의 결정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득도를 위한 수운과의 天師問答에서 그 과정을 소상히 적고 있다. 그런데도 동학을 포교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신하고 도덕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개탄하면서 동학의 올바른 이치를 간략하게 적어 교훈을 삼게 한다고 하였다.

### (3) 論學文

동학의 이론을 적은 것으로 우주 속의 本體生命의 상대적인 작용으로 만물이 化生하였는데 그 중 가장 신령한 存在가 사람이다. 과거 인간은 尙自然의 그릇된 인식으로 타락하거나 헤매어 왔다. 수운이 득도한 새로운 사상을 권장하면서 함께 西歐의 오류도 이론적으로 비판하였다.

여기에서 吾心即汝心이 人乃天의 원천이 되며 事人如天의 도덕적 규범됨을 마련했다. 또한 동학의 주문을 풀이하였으며 우주만물이 化生하는 근본원리와 인간사회의 발전법칙 개인의 인격적 향상의 수련방법을 제시하였다. 論學文에서는 동학으로 일컬어지는 까닭을 풀

이하였고 끊임없는 精進을 덧붙이고 있다.

#### (4) 修德文

德을 닦는데 있어 먼저 儒家에서 修德한 그 傳承의 경위와 수운 자신의 家系 스스로의 방랑과 정신적 방황에서 얻게 된 求道の 轉機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得道에서부터 포교의 과정과 守心正氣에 의한 지극한 수도법을 가르치고 道成德立은 정성과 믿음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 (5) 不然其然

1863년에 쓴 것으로 우주만물의 생성과정에서 그러한 것(其然)과 그렇지 않은 것(不然)의 이치를 풀이하였다. 모든 현상이 이 상반된 원리의 연쇄작용에 의한 것인데 옛 사람들은 이를 바로 보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상 그대로를 보기 보다는 그러한 현상의 발생동기를 위의 상반된 이치를 통해서 통일성있게 발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不然其然是 동학의 우주관·사물관으로서 한 생명체인 우주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낡은 부분은 소멸하면서 새로운 부분은 계속 성장·발전한다는 법칙을 설명하였다.

#### (6) 教訓歌

제 자들과 후생들을 教訓한 글로서 자신의 宗系와 몰락·방랑·득도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득도가 조상에게 보답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이러한 자신의 일생을 설명하면서 후손 후

경  
된  
수  
음

생들에게 道成德立해서 자포자기에 빠지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7) 安心歌

교훈가와 더불어 지은 것으로 먼저 水雲이 부인을 타이르는 형식을 빌어 당시 여성들에게 자신의 득도한 도를 따르면 행복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서 안심시키고 있다. 安心歌는 또한 동학의 여성관을 밝힌 것으로 거의 노예적인 지위에 놓였던 여성들에게 참다운 삶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글이라고 하겠다.

(8) 道修詞

은  
이  
기  
일  
도  
한

1861年 정부의 주목을 피하여 전라도 지방에서 각처의 동학교도 지도층에게 도인들을 지도하는 원칙을 알린 글이다. 종래 儒道가 사제간의 전승이 제대로 안되어 잘못된 점에 비추어서 동학은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서도 상급도인이 더욱 그 책임을 저야하고 특히 亂法亂道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하였다.

(9) 勸學歌

1862年 전라도 피신 동안 고향에 있는 제자들에게 변함없이 도에 정진할 것을 가르친 글이다. 이 글에서도 넓은 세상이 가고 새 세상이 天理에 따라 곧 도래할 것이니 한울님을 위하는 것이 곧 自我의 발전이며 擴大니 道를 충실히 따르면 꼭 後天開闢을 만나 좋은 삶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였다.

## (10) 道德歌

동학에서 말하는 도덕에 대하여 本體生命인 한울의 뜻에 맞추는 행위는 올바른 도덕이 되고 거기에 어긋나는 행위는 죄악으로 보았다.

도덕가에서 水雲은 한울님·귀신·음양 등을 본체생명으로 통합시켰으며, 우주에 가득찬 생명체가 음·양으로 나뉘어 相互作用에 의하여 萬物이 化生된 것이므로 個體生命은 本體生命의 발전 성장을 위한 상관관계적 원리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을 가르쳤다.

## (11) 興比歌

1863년에 도인들 간에 나타나는 염려되는 행실들을 타 이른 글이다. 일부 도인들은 사려가 깊지 못하여 나타나는 소망스럽지 못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를 경계한 글이다. 말하자면 도인의 증가는 개중에는 미숙한 도인과 심하면 도인을 가장하는 무리와 수련과정에 중도포기하는 도인들의 잘못을 일일이 타일렀다.

이 밖에도 歡道儒心急 八節, 龍譚歌 夢中老少問答歌, 劔歌 등이 있으나 그 내용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 5) 生活實踐

일찍부터 종교는 인간의 참된 삶을 바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에 따라서는 그 생명력의 약화에 따라 지나치게 儀式中心으로 때로는 祈福·祈願으로 떨어져서 인간의 실제생활의 충실·발전과는 관계없는 허울만의

높음으로 전락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 점 동학은 철저히 인간의 삶을 터전으로 해서 自我實現을 강조한 착실한 생활종교였다.

당시 우리 실정으로서의 거의 무시되어 왔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쩌면 오늘의 개인생활, 사회생활, 공중도덕 생활면에 있어서도 절실히 必要로 하는 실천규범을 내 놓았다.

1881년 海月은 7년전 도인들에게 금해오던 魚肉 酒草를 해제하였다. 이는 인간의 感性과 자연성을 이해하고 드는 근대적 사회 의식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魚肉의 禁食解除의 사유도 「以天食天」이라는 「天地萬物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以天食天은 宇宙의 常理다」<sup>32)</sup> 라는 논리를 인용하였다. 즉 사람이 魚肉을 취하는 것은 한울의 일부인 사람이 역시 한울의 일부인 魚肉을 먹는 以天食天으로 이는 우주의 보편적 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自然界나 사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그것이 곧 天理에 순종한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동학은 완고한 보수적 계율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렇듯 새로운 변화와 文物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適應的 開放的인 開化意識的 논리를 무리없이 펴 나갔던 것이다.

己丑年(1889) 海月은 동학을 믿는 부인들을 위해 지은 「內修道文」은 여성의 본연적 인간적 자각과 새 文物을 수용토록 한다는 신념을 읽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음미되고 실천화 생활화 되어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게

32) 乙酉年, 海月說教

실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① 부모님께 효도를 극진히 하고 서방님께 극진히 공경하오며 내 자식과 며누리를 극진히 사랑하오며 하인을 내 자식 같이 아끼며 육축(六畜)이라도 다 아끼며 나무란 생수를 꺾지말며 부모 분부 하시거든 성품을 저스리지 말며 웃고 어린 자식 치지말고 울리지 마음소서, 어린 아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 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니 한울님이 싫어 하시고 기운을 상하나니라 부디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지 말고 화순하기만 힘쓰옵소서. 이같이 한울님을 공경하고 효성하오면 한울님이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나니 부디 한울님을 극진히 공경 하옵소서.

② 가신 물이나 아무 물이나 땅에 부을 때 멀리 뿌리지 말며, 가래침을 멀리 뱉지 말며, 코를 멀리 풀지 말며, 침과 코가 땅에 떨어졌거든 닦아 없이 하고, 또한 침을 멀리 뱉고 코를 멀리 풀고 멀리 뿌리면 곧 천지 부모님 얼굴에 하는 것이니 부디 그리 아시고 조심 하옵소서.

③ 잘때에 「잡니다」고 하고, 일어날 때에 「일어 납니다」고 하고, 방아 쪼으려 갈때에 「방아 쪼으려 갑니다」고 하고, 정하게 다 쪼은 후에 「벼 몇말 쪼었더니 쌀이 몇말 몇되 났읍니다」고 하옵소서.

④ 먹든밥 새 밥에 섞지 말고, 먹든 국 새 국에 섞지 말

고, 먹든 김치 새 김치에 섞지 말고, 먹든 반찬 새 반찬에 섞지  
말고, 먹든 밥과 국과 김치와 반찬 등절은 따로 두었다가 시장하  
거든 먹되 고하지 말고 그저 「먹습니다」 하옵소서.

⑤ 조석 할 때에 새 물 길어다가 쌀 다섯번 씻어 얹히고,  
밤해서 풀 때에 국이나 장이나 김치나 한그릇 놓고 극진히 고  
합소서.

⑥ 일가 집이나 남의 집이나 무슨 불 일이 있어 가거든  
「무슨 불 일이 있어 갑니다」고 하고, 불 일 보고 올 때에 「무  
슨 불 일 보고 집에 갑니다」고 하고, 일가나 남이나 무엇이든지  
주거든 「아무 것 받습니다」고 하옵소서.

⑦ 금이 난 그릇에 먹지 말고, 이 빠진 그릇에 먹지 말며,  
살생 하지 말고, 삼시 음식을 부모님 제사와 같이 받드옵소서.  
(위 일곱가지 조목) 위 일곱가지 조목을 하나도 잊지 말고 매매  
사사를 한을님께 고 하오면 연병윤감(延病輪感)을 아니하오며, 악  
질과 당학(唐瘡)을 아니하오며, 별복(臆腹)과 초학(初瘡)을  
아니 하오며 간질(癩疾)과 대풍병(大風病)이라도 낳으리니 부디  
정성하고 공경하고 믿으옵소서. 병도 낳으려니와 위선 대도를 속  
히 통할 것이니, 그리알고 신실 봉행 하옵소서. 33)

33) 天道教經典, 海月神師法說, 內修道文

\* 소절목 번호는 편의상 붙였음

이상과 같이 특히 부녀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근대적인 위생관념과 규모 있는 살림살이의 재해와 나아가서는 박애정신의 생활화를 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문처럼 되풀이 되어 새기는 동안에 일상생활의 잘못을 고쳐 나갈도록 하였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고치지 못한 채 고질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전근대적인 생활관습에서 해방고 있었던 그 시기로서는 놀라운 생활개선 운동으로 평가되어 마땅할 것이다.

#### 부록 16) 兒童尊重

이 문헌이 낡은 생활에 있어서도 아동·여성·가정 교육에 관한 특정한 가르침은 내려져 왔다. 五倫思想의 하나인 長幼有序는 家內에서도 兄弟의 序는 順序, 次序, 秩序를 뜻했다. 그러나 御用儒敎가 바랐던 궁극적 목표는 家父長制 가족제도에 있어서 아동은 每事를 연령으로서 先後高下를 차례 지우는 종속적인 자신의 위치를 비판없이 순종하고 수용하는 예속을 美德으로 준수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아동에게 사랑은 주어졌으나 인격체로서의 존중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은 어른에게 반드시 敬待하는 대신 아동은 下待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어져 왔다.

이 점 小春 金起田도 전통 사회의 尙兒童觀이 얼마나 그릇되었던가를 지적하고 있다.

嗚呼라, 朝鮮 幾千年間의 우리 長者들은 幾千年間의 우리 幼年의 인격을 말살하여 자유를 박탈한 역사적 큰 죄인이었으며 惡行者이 었도다. 어찌면 종래의 長者가 대죄인이 되기까지 악행자가 되기 까지, 幼年의 인격을 蔑殺하였으며 자유를 박탈하게 되었는데 視察 하는 방면에 의하여는 諸多原因이 無함도 아닐지나 一言으로 蔽하면 旧倫理道德의 殘弊, 切言하면 소위 五倫中의 一인 長幼有序의 末弊라고 余는 단언하노라, 長幼有序의 根本意 一 즉 五倫을 敎하던 当初其人의 의사를 말하면, 대개 禮儀作法上 長幼의 순서를 말함시오, 결코 長者가 幼者의 인격을 무시하기까지 位序를 정하라는 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34)

종래의 아동관은 위 서술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동학은 부인이 胎兒를 갖는 것은 그저 신체의 부분적인 변화나 부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이 한울을 모시듯이 어머니가 胎兒라는 한울을 모시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海月은 「胞胎」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이 胎兒를 한울처럼 모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동학은 이러한 임신기간중 생명의 존엄성 고귀성을 전래적으로 내려온 胎敎의 가르침에 부합시켜 더욱 부각시키고 이를 부인들에게는 꼭 준수토록 하였다. 모태에서의 생명의 성장은 바로 인간 교

34) 金起田, 長幼有序의 末弊 一 幼年男女의 解放을 提唱함  
[ 開關 第2号 ( 1920.7.25 ) ], P.54

육의 출발이라고 보아 우리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태교라는 임신한 부인에 대한 준칙이 내려져 왔다. 이러한 산발적인 교훈 내용들을 한데 묶어서 동학교인은 꼭 지켜야 되는 계율로서 준수토록 했다.

海月은 이에 아래와 같이 「내칙(內則)」으로 이를 묶어서 가르쳤다.

포태하거던 육종(肉種)을 먹지 말며 해어(海魚)도 먹지 말며 논에 우렁이도 먹지 말며 지렁이 가재도 먹지 말며, 무론 아무 고기라도 먹으면 그 고기의 기운을 따라 사람이 나서 모질고 악하나 나랏.

일삭이 되거든 기운 자리에 앉지 말며, 잘때에 반듯이 자고 모로 눕지 말며, 김치와 채소와 떡이라도 기울게 썰어 먹지 말며, 위태로운데 다니지 말며, 지름길로 다니지 말며, 남의 말 하지 말며, 무거운 것을 들지 말며, 경한 것이라도 중한듯이 들며, 밤아 췌을 때에 어렵거든 찡지 말며, 너무 뜨거운 것도 먹지 말며, 너무 찬 것도 먹지 말며, 기대어 앉지 말며, 비껴 서지 말며, 남의 눈을 속이지 말라.

이 같이 아니하면 사람이 나서 요사(妖死)도 하고 조사(早死)도 하고 횡사(橫死)도 하고 병신도 되나니 이 여러 경계 하는 말씀을 잊지 말고 이 같이 십삭을 공경하고 믿어하고 조심하오면 사람이 나서 체도도 바르고 총명도 하고 기국(器局)과 재기(才技)

가 사람에게 지날 것이니 부디 그리 알고 각별(格別) 조심 하옵소서.

이대로만 시행하면 문왕(文王) 같은 성인과 공자 같은 성인을 낳을 것이니 그리알고 수도를 지성으로 하옵소서.

내칙과 내수도하는 법문을 침상가(床架)에 던져두지 말고 조용하고 한가한 때를 타서 수도하는 부인에게 외어 들여 빼에 새기고 마음에 쓰게 하옵소서.

천지 조화가 이 내칙과 내수도문 두 편에 들었으니 부디 범연하게 보지 말고 이대로만 밟아 봉행 하옵소서. 35)

동학의 內則에서 설명된 임신 기간에 지켜야 할 내용 가운데는, 오늘날의 과학이나 영양학의 기준에서 본다면 전혀 터무니 없거나 문제 삼지 말아야 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관습과 의식수준·과학적 지식의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그 내용의 비과학성을 따지지 전에, 전래되어 온 태교는 그나마 소수의 특수층에서나 알려지고 준수되었을 뿐이었다. 이 점 동학에서는 태교가 지닌 기본 정신과 규범을 일반 서민 부인들에게도 알리고 지키게 한 데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동학의 인간존중주의에 터한 인간관에서는 이제 어떠한 부인을 막론하고 새로운 생명이 한울님을 내 몸속에 맞이하는 경건한 자세로 胞胎된 생명의 양육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內則이 담고 있

35) 海月神師法說, 內則

는 근본정신일 것이다.

동학의 幼兒 및 兒童觀은 아이들을 바로 한울님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水雲은 不然其然에서

갓난 아기의 어리고 어림이여 말은 못해도 부모를 알고 있으니 어찌 아는 것이 없다고 하겠는가. 이 세상 사람이여 어찌 앓이 없겠는가<sup>36)</sup>

newborn의 모습에서도 人間의 존귀성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海月에 내려와서는 侍人接物에서 도가부인은 경솔히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을 상하는 것이니라.

도인집 부인은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함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니 일체 아이를 때리지 말라.<sup>37)</sup>

胎兒로부터 幼兒·兒童을 인격적인 존재자로서 한울님을 대하듯 소중하게 길러야 한다는 兒童觀은 한국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물론 그 이전의 가르침에서도 어린이를 함부로 다루어도 무방하다고 한 바는 없으나 어린이의 위치를 분명히 명시하고 대등한 인간관계로 위치 지우지는 않았다.

지난날 대부분의 아동은 어른의 종속물로서 때로는 노리게 감으로

36) 赤字之稚稚兮 不言知夫父母 胡無知 斯世之人兮 胡無知

37) 道家婦人 輕勿打兒 打兒即打天矣 天厭氣傷 道家婦人 不畏天厭氣傷 而輕打幼兒則 其兒必死矣 切勿打兒 [海月 神師法說, 侍人接物]

밖에는 보지 않았다.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대우나 인정을 받기 보다는 천덕꾸러기로 생활했던 것이다. 그러한 시대에 동등한 나아가서는 존엄한 인격체로서 아동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준렬한 가르침은 그 때까지의 어떠한 교육사상에서도 미처 제시하지 못했던 놀라운 兒童의 人間化 宣言이었다.

이러한 人乃天 사상을 터전으로한 兒童觀은 天道教에 내려와서 小波 方定煥, 金起田 등이 앞장서서 일으킨 최초의 少年解放運動의 정신과 그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 7) 女性尊重

동학의 근본사상인 人乃天·事人如天은 종래의 奴主·嫡庶·班常 심지어 男女의 구분을, 극복시키자는 데 특징이 있다. 水雲의 侍天主 사상은 한울님의 각 개인에의 內在化를 통해서 인간존엄성의 확인의 원리는 드디어 三從之道와 七去之惡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천대받았던 주인공인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개를 약속했다.

말하자면 오늘까지 그들과 둘러리로 자신의 가냘픈 존재 확인을 가까스로 받았던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파격적 女性觀을 동학은 제시했던 것이다.

이는 開化이후의 어슬픈 男女同權論에 앞서서 근본적인 새로운 女性解放을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단지 口號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水雲은 몸소 女從 한사람을 며느리로, 한사람은 수양딸로 삼았다. 이것은 血緣·結緣에서 사람을 일체의 비교대상에서 해방시킨 절대존엄의 선각적인 실천을 행하였다.

水雲은 1860년 安心歌에서 「현숙한 내집 부녀 이 글 보고 안심하소」를 서두로 하여 부인을 안심시키는 형식을 갖추어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득도한 도를 준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설득시키고 있다. 이 安心歌는 東學의 새로운 여성관을 밝혔을 뿐 아니라 동학에서 여성지위 향상의 준칙이 되었다.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존재였던 여성들에게 인생의 참 모습과 올바른 가치를 자각시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성의 절대적인 위치를 깨닫게 하여 여성 스스로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동학의 기본 취지를 海月은 「婦人修道」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강성택이 묻기를 「우리 도 안에서 부인 수도를 장려하는 것은 무슨 연고 입니까」

신사 대답 하시기를 「부인은 한 집의 주인이니라. 음식을 만들고 의복을 짓고 아이를 기르고 손님을 대접하고 제사를 받들고 하는 일은 부인이 감당하니 주부가 만일 정성 없이 음식을 갖추면 한울이 받드시 감응치 아니하고 정성없이 아이를 기르면 아이가 받드시 충실치 못하나니 부인 수도는 우리 도의 근본이니라.

이제로부터 부인 도통이 많이 나리라. 이것은 「일남구녀」를 비한 운이니 지난 때에는 부인을 압박하였으나 지금 이 운을 당하여는 부인 도통으로 사람 살리는 이가 많으리니 이것은 사람이 다

어머니의 포태 속에서 나서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sup>38)</sup>

라고 하였다. 여성, 특히 부인의 비중을 지난 날의 종속적·수동적인 위치나 소임 부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전 능동적·주체적인 위치로 그 소임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海月の 淸州의 徐宅淳 子婦의 늦은 밤에 베짜는 소리를 듣고 그것은 아무개의 머느리가 베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울님이 베를 짜신다고 설명하였다는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동학이 정의한 여성의 존재나 그 지위 인식은 가히 봉건적 女性觀을 타파한 근대적·인간적 女性觀의 開眼이었다.

현재도 男女同權論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면 왕왕히 접하게 되는 설익은 자신들의 권리 요구보다는 여성으로서 할 바 의무를 다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동등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시 새기고 들어야 할 올바른 人間존엄을 바탕으로 한 女性觀을 정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 여성관 위에 동학은 더욱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들고 무엇보다도 화목한 부부생활을 교인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터전이며 근본이 됨을 「夫婦和順」에서 아울러서 강조하였다.

38) 康聖沅 問曰 吾道之內 婦人修道獎勵 是可故也 神師曰 婦人家之主也 為飲食 製衣服育嬰兒 待賓奉祀之役 婦人堪當矣 主婦 若無誠而俱食則 天必不感 無誠而育兒則 兒必不充實 婦人修道 吾道之大本也 自此以後 婦人道通者 多出矣此一男九女而比之運也 過去之時 婦人壓迫 當今此運 婦人道通 活人者 亦多矣 此人皆是 母之胞胎中 生長者如也 [海月神師 法說, 難疑問答(五), 婦人修道]

「부화부순」은 우리 도의 제일 근본이니라.

도를 통하고 통치 못하는 것이 전혀 내외가 화순하고 화순치 못하는데 있나니라.

내외가 화순하면 천지가 안락하고 부모가 기뻐하며, 내외가 화순치 못하면 한울이 크게 미워하고 부모가 노하나니 부모가 노하는 것은 곧 천지가 노하는 것이니라.

천지가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미묘한 것은 보기 어려우나 노하는 현상은 당장에 보기 쉬우니 크게 두렵도다. 부부가 화순하면 한울이 반드시 감응하여 일년 삼백 육십일을 하루 아침 같이 지내니라.

부인은 한 집의 주인이니라. 한울을 공경하는 것과 제사를 받드는 것과 손님을 접대하는 것과 옷을 만드는 것과 음식을 만드는 것과 아이를 기르는 것과 베를 짜는 것이 다 부인의 손에 달리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남자는 한울이요 여자는 땅이니 남녀가 화합치 못하면 천지가 막히고 남녀가 화합하면 천지가 크게 화하리니 「부부가 곧 천지」란 이를 말한 것이니라.

부인이 불민하면 아무리 날마다 세 가지 짐승(소, 양, 돼지)으로 봉양 할지라도 한울이 반드시 감응치 아니하리라.

부부가 화순치 못하면 자손도 잘 기르지 못하느니라. 여자는 편성이라. 혹 성을 내어도 그 남자 된 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절을 하라. 한번 절하고 두번 절하며 온순한 말로 성내지 않으면 비록 「도척」의 악이라도 반드시 화할 것이니 이렇게 절

하고 이렇게 절하라. 39)

라고 하여 부부간의 참다운 사랑은 濫言順辭와 인간적인 존경과 예우에서 비롯됨을 알렸으며 부부간의 상대적인 위치와 부부 각자가 할 바 그 소임과 사명을 일깨웠다. 심지어 영악한 부인을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으로서 끝없이 성의를 다하면 惡妻를 良妻로 맞이할 수 있음을 알린 대목은 인간에의 신뢰와 성실이 곧 가정의 건설에서부터 입을 다시 설파하였던 것이다.

동학은 여성 신분의 해방과 그 格上의 意識化를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난 날의 女性觀의 일대혁명을 부른 것이다. 이러한 여성해방 운동의 토대 위에 비로소 인간회복·인간존엄성을 자각케 하는 여성운동·여성교육의 과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존엄 사상 위에 정립된 동학의 여성관은 바로 인간의 고귀성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여성 스스로의 여성의식을 각성시키고 인격주의적 남녀동등을 의식시켜 스스로의 自我를 발전하고 탐구하고 실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던 것이다.

39) 夫和婦順 吾道之第一宗旨也 道之通不通 都是在 內外和不和 內外和順則 天地安樂 父母喜悅 內外不和則 天大惡之 父母震怒矣 父母震怒 即 天地之震怒也 天地安樂之微妙 難見 震怒之象 當場易見 大惶大悚也 夫婦和順則 天必感應 一年三百六十日 如一朝過之矣 婦人一家之主也 敬天也 奉祀也 接賓也 製衣也 調食也 生産也 布織也 皆莫不由於 婦人手中也 男乾女坤 男女不和則 天地不塞 男女和合則 天地泰和矣 夫婦師天地者 此之謂也 婦人不敏 難日用三牲之養 天必不応也 夫婦不和子孫零落 女人偏性 其或生性 為其夫者 盡心盡誠 拜之 一拜二拜 濫言順辭 勿加怒氣 難盜跖之惡 必入於化育之中 如是拜如是拜 [海月神師法說。夫和婦順]

## 8) 實業教育

조선시대의 實學思想이 北學論으로 계승되면서 퇴폐한 국가 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중생활의 구제는 적극적인 산업진흥과 과감한 직업관의 혁파등 진보적이며 구체적인 이론으로 개혁을 꾀했다.

그러나 그 시기의 왕조사회의 제반 조건은 그러한 생산적인 건의를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수 없었기에 그러한 개혁의지가 우리의 근대화를 순조롭게 정착·전개시키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초기 동학사상은 反封建·反侵略·현실 비판에 치중되고 있으나 그것이 기약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의 구상과 그 실현방법은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과는 합치되기 어려운 환상적·공상적 요소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당시 國內외의 변전하는 정세와 開化思想의 맥락에서 추진된 甲午東學戰爭, 후일의 東學敎徒의 일련의 활동은 서서히 대중적 성격을 띄우고 진전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세계대세의 동향과는 거의 폐쇄되었던 상황에서 출발되었던 동학도 제 3대 교조인 義菴 孫秉熙(1861 ~ 1922)에 이르러면, 동학으로서의 開化意志가 구체적으로 부각된다. 즉 1902년의 「三戰論」에서는 동학이 지녔던 「近代化」에 관한 進路와 그 수용 정립이 확인된다.

三戰論은 1903년 8월 의암의 國政改革案을 건의한 建白書이며 동학사상을 뼈대로 한 開化思想으로 進展된 保國安民이 「道戰·財戰·言戰」의 순서로 펼쳐지고 있다. 말하자면 三戰論에서 東學과 開化思想은 제후의 논리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三戰論」은 그 머리말에서 天道의 근본원리는 불변하나, 시세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변해야 한다. [治異道同時異規同也]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 그래서 三戰을 제기하는 논거로서 현 시대는 열강 령력의 균형에 의해서 「五獸不動」의 狀態이며 이에 文明에의 길을 재촉해서 保國安民의 策을 다하는 데는 道戰·財戰·言戰 以外는 없다고 하였다.

특히 「財戰」에서 표방한 近代化에 있어서 선진산업, 기술을 여하히 수용·학습할 것이며 그 중요성과 아울러 긴급성을 제창하였다.

재전이란 무엇인가. 재물이라 하는 것은 한울이 준 보배요 생령의 이용물이요 원기의 기름이라 그 종류가 얼마인가. 동물, 식물, 광물이 이것이니라. 사람은 물건을 쓰는 주인이니 그 이익은 무엇인가. 농상·공업이 이것이니라. 농기구를 발달 시키어 농사할 때를 어기지 않으면 그 곡식을 다 먹을 수 없나니라. 먹는 것을 때 맞추고 쓰는 것을 절중하면 흉년과 환란을 가히 방지할 것이니 이것을 「농업」이라 하고, 있는것과 없는것을 사고 팔고 옮기고 이익을 불리어 부자가 되고 수입을 보아 쓸 데 쓰고, 힘껏 벌어서 먹고 쓰면 이것이 保産하는 제책이니 이것을 「상업」이라 하고, 기계를 만들어 쓰기에다 편리 하거니와 보기에다 좋을 것이다. 규격을 바로하면 백가지 물건이 전부 넉넉하니 이것을 「공업」이라 하나니라. 이 세가지 업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 법이요 좋은 규칙이라 이즈음 세계는 인기가 왕성하여 듣고 보

는데 경위가 빠르고 물건을 대하면 이치를 생각하여 만들고 절용하니 진기한 각종 물건을 미처 쓰지 못할 것이 많으니라. 만약 특출한 물건을 각국에 상품으로 시험하여 그나라 소산물을 바꾸어올 것이니라.

이같이 하면 혹 미개한 나라는 이해 분석을 할 줄 모르던 몇해를 지내지 아니하며 그 나라에 쇠잔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로써 보면 정령히 이것은 기름을 빨아먹는 앞재비니라.

이러므로 꾀있는 선비는 생각이 같은지라 위에서 왕가의 자제로부터 아래로 민간의 수재에 이르기까지 그 재주를 기르고 그 기술을 발달시켜 한끝으로는 外國 物品을 막아내고 한끝으로는 나라이 부해지는 술책을 쓰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싸움이 아니라고 하랴, 이러므로 나는 반드시 말하기를 「싸울만 한 것은 재전이라」 하노라. <sup>40)</sup>

라고 해서 財戰, 그것은 天寶의 物貨를 生靈이 利用 함으로써 元氣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천혜의 動, 植, 鑛物을 이용해서 農, 工, 商業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산업발전에 이용하는 것은 곧 인간이기 때문에 [人為致物之主], 왕실의 자제로부터 서민의 俊秀에 이르기까지 그 才技를 제발시켜서 먼저 「外禦之策」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 「富國之術」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0) 義菴 聖師法說, 三戰論(癸卯仲春) 二·財戰

특히 당시 물밀듯 밀려오던 外國資本과 商品에 의한 國內산업의  
파탄과 植民地化의 위기를 직시하면서 산업, 기술진흥의 긴급성과  
이를 구체적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을 천  
명하였던 것이다.

## V. 東學의 教育事業 展開

동학이 창도된 배경과 그 진전과정에서 보였듯이, 당시 도탄에 빠지고 갈바를 몰라 헤매던 민중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자각시키고 輔國安民의 주체자로서 각성시킨 공적은 東學教化史의 핵심이며 民族發展史의 한 章이었다.

말하자면 東學의 組織化와 더불어 번저간 「人乃天」의 평등사상의 社會的 擴散을 들 수 있으며 二代教祖인 崔時亨에 와서는 계속된 탄압 속에서도 包를 단위로 한 接·接主·道主 제도의 조직과 敎務의 집행기관으로서의 六任制度의 확립 등은 동학사상의 敎化展開의 양상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학의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한 平等觀念의 진전과정을 보면 水雲의 「天心即人心」에서 海月の 「事人如天」이 義菴에 이르러 「人乃天」으로 정착된다. 水雲이 말한 「我心即汝心」이라든가 「天心即人心」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가 天極大道(東學)을 각득하였을 즈음의 心的狀態였던 심령구제인 天人合一을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뜻하는 天心即人心은 社會的 平等觀보다는 종교적 心的傾向이 짙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海월에 와서는 敬天, 敬人, 敬物을 역설하면서 侍天主를 한걸음 나아가서 事人如天으로 일컫게 한 것이다. 이는 사람은 즉 한울이며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인위적인 귀천의 구분은 天意에 어긋나는 것으로<sup>41)</sup>

41) 李敦化編, 天道教創建史, 京城: 天道教中央宗理院, 1933, P.17 參照

규정했다. 여기에 이르러면 「天」은 心的 狀態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社會에 있어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의 次元으로 도약된다.

이에 布德 5년째인 1864년에는 교조에게 嫡庶차별을 폐지시키고 88년의 內修道文에서는 事人如天은 세속적 평등관념으로서 인간존엄을 뚜렷히 구체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아름다운 동학의 일련의 進展과정은 民衆教化라는 측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남겼다. 동학의 그러한 歷史改革者로서의 의지는 본의 아니었으나 甲午 東學戰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방되었던 슬로우전은 현실적인 정치에 관련된 문제 以外에도 윤리적인 내용을 길게 담고 있었던 것이 많았다.

이는 실제생활을 통해서 事人如天의 새 윤리를 기약하고자 했던 데 있었을 것이다. 1894년 東學軍이 봉기하고 5월 全琿準에 의하여 마련되었다는 「紀綱」에서

不殺人 勿害物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자에 해를 끼치지 말라)

忠孝叢全 濟世安民 (忠孝를 다하여 濟世安民하라)

遂滅倭夷 澄清聖道 (倭夷를 축멸하고 聖道를 밝히자)

驅兵入京 盡滅權貴 (서울에 진격해서 權貴를 없애자)

를 밝히고 있다. 이미 東學戰爭은 단순한 民擾나 反亂을 넘어선 意識化의 토대가 성숙되었음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인 실례로서 東學軍이 全州城을 점령했다가 外勢의 개입으로 복잡하게 된 나라의

사정을 일단 받아들여 철수하는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전라도 지방의 執綱所 설치와 내세웠던 아래 弊政改革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 근대화가 겪어야 될 진통을 그대로 집약한 것으로 동학의 思想的 成長의 바로메타로 보아 무난할 것이다.

- ① 道人과 政府와 사이에는 宿嫌을 蕩滌하고 庶政을 協力할 事
- ② 貪官汚吏는 그 罪目을 查得하여 一一 嚴懲할 事
- ③ 橫暴한 富豪輩는 嚴懲할 事
- ④ 不良한 儒林과 兩班輩는 懲習할 事
- ⑤ 奴婢文書는 燒祛할 事
- ⑥ 七班賤人の 待遇는 改善하고 白丁頭上에 平壤笠은 脫去할 事
- ⑦ 青春寡婦는 改嫁를 許할 事
- ⑧ 無名雜稅는 一并勿施할 事
- ⑨ 官吏採用은 地閥을 打破하고 人材를 登用할 事
- ⑩ 倭와 奸通하는 者는 嚴懲할 事
- ⑪ 公私債를 勿論하고 已往의 것은 并勿施할 事
- ⑫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할 事<sup>42)</sup>

를 내걸었고 이러한 執綱所의 설치는 현재까지 政治的 客體에 머물렀던 민중이 정치참여의 制度化를 기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동학사상은 이러한 구체적인 弊政改革의 의지속에 反封建·反侵略의

42) 吳知泳, 東学史, 京城, 永昌 書館, 1939, PP.126 ~ 127

經世安民을 實踐化 시킬 수 있는 그 동안의 教化과정에서 충분한 배경훈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本節에서는 3대 교조인 義菴이 甲午東學戰爭의 좌절로 일본에 망명하고부터 동학이 후일 天道敎로 재개편되면서 펼친 몇가지 교육 활동을 적어 두고자 한다.

義菴은 일본 망명 시기에 당시 선진일본의 제반실정을 보고 道家子弟들로 하여금 文明學術을 배우게 함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크게 유익함을 확신했다. 이에 동생 秉欽을 귀국시켜 도인들에게 타일렀더니 모두 따랐다. 이에 망명지에서도 布德으로 「衛生保護章」등을 알려 교화에 힘쓰게 한다든지 三戰論으로 동학이 당시의 時局에 임하는 訓諭文과 修道에 의 계속정진을 다짐하였다.

1902년(壬寅) 3월에는 청소년 24명을 선발해서 직접 인솔하여 일본 奈良·京都 등지의 일본인 학교에 입학시켜 새로운 人材양성에 힘썼다. 이 때의 전말을 義菴伝記에는,

동경으로 옮긴 의암 선생은 다시 우리나라 학생 40명을 모집하여 일본으로 데려다가 일본인 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전후 2차에 걸쳐 64명의 한국인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 알선시켰다. 이같은 일본 유학생의 알선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양성하여 새로운 세계 문명과 접촉시켜 새로운 文明思潮에 호응시킴으로써 앞으로 富強한 獨立國家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 하에서 취해진 것이다. 의암은 자신이 망명중이며 정치적으로도 한국 침략을 눈앞에 둔 침략자들의 틈바구니에서도 잊지 않고 장차의 계획을 위하

여 청년들의 교육에 까지도 온 힘을 다하였던 것이다. 43)

적어도 동학이 험난하고 기나긴 박해기간의 지하활동에서 겨우 재건기를 맞이한 어려운 시기에 당시 정부에서도 벅찼거니와 하물며 여타 독지가나 종교단체에서도 업무를 내기 어려웠던 유학생 파견을 동학 스스로의 힘으로 재원을 뚝뚝하여 보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사에서도 究明되고 標記되어야 할 사업이며 활동이었다.

東學이 天道教로 바뀌어서는 더욱 근대적 교육사업의 실현에는 학교교육을 진흥시켜 民智를 제발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民族生活의 토대를 다져 民族力量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義菴이 日本亡命中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教育效果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広設이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1906년 돌아 왔던 것이다.

天道教가 근대적 교육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의암의 귀국 1개월째 부터이다. 이 때의 경과를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아직 새로운 學校設立과 같은 본격적 사업에 착수하기는 준비기간이 必要하였으므로 우선 既設學校에 대하여 補助費를 寄與하는 잠정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었다. 三月初旬에 들어 私立普成學校 학생들이 열심히 工夫함을 致賀하여 校長 金重煥에게 紙貨 八十圓을 寄進한 것을 필두로 며칠 후에는 西署 蛤洞小學校에 四十圓을 보조하고 敎員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다음 날에는 市内外의

43) 義菴孫秉熙先生紀念事業會, 義菴孫秉熙先生傳記, 義菴紀念事業會, 1967, P.171

私立學校 23 個校에 그 學課程度와 敎員·學生數의 多寡에 따라 차등을 두고 每校마다 八十圓으로부터 二十圓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學校補助는 그 후에도 興化學校와 琵琶洞所在 私立 光明學校에 각 三十圓을 寄贈하고 四月初에는 私立 石村洞 小學校에 十五圓을 補助하였다. 市內의 大小 私立學校에 보조금을 기부하게 된 큰 이유는 당시의 私立學校마다 財政難에 허덕이고 있어 生徒를 위한 敎材無償供與는 물론 敎員의 俸給支払조차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을 딱하게 여겨 취해진 것이다. 따라서 학교규모에 따라 지급의 기준에 등차를 두기로 하였으나 그 학교의 財政狀態에 따라 捐助金을 가감하여 支給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私立學校의 보조는 一時贊助金의 지급에 그치는 데도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每月 定額의 보조금을 지불하여 經營難으로 말미암은 學校閉鎖의 悲運에서 건져내기에 힘쓴 것이다. 44)

이러한 천도교의 학교 신설의 준비와 더불어 실시해 왔던 既設學校 보조금 지원마저 一進會員 黜敎処分이 빛은 敎會財政의 어려움으로 敎育事業은 한때 敎회정비 이후의 과제로 밀려났던 것이다.

천도교가 초기에 이토록 민족敎育을 위하여 뒤에서 현실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욱 1908년 8월 8일의 私立學校令의 布告는 조건이 불비했던 私學에는 더욱 운영의 어려움을 加重시켰던 시기이므로 이러한 支援事業은 그 의미가 더욱 컸던 것이다.

44) 上揭書, P.281

1910년이 되면 天道敎의 재정 형편은 나아졌으나 이미 主權이 日帝에 넘어간 다음으로 본격적인 교육사업의 전개도 용이치 않았다. 이 때 李容翹이 설립 했던 普成學園이 설립자의 海外亡命으로 운영이 여의치 못하였으며 당국으로부터의 보조금 미끼로 官立으로 전환시키려 한 바도 있어 폐쇄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1910년 12월 21일 당시 專門, 中, 小, 各급학교를 포함했던 유수의 私立學校 普成學園을 天道敎가 인계 받았다. 手交內容은 大道主 朴寅浩의 명의로 신청 변경하였으며 인계후 3개년 내에 旧校主가 귀국해서 그 권리의 반환을 요구하면 實費償還으로 이를 돌려주고 3년이 경과되면 영구히 천도교에 귀속시킨다는 조건이었다.

한편 女性敎育기관인 東媛女子義塾에서 시작된 同德女學校를 1914년 12월 27일 인수하게 된 경위는 1909년 11월부터 每月 十圓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다 義菴은 청년敎育가 趙東植의 열성에 동조하여 1910년 12월부터는 70圓씩의 보조와 구 천도교의 사무실이 소재했던 부지, 시설물을 회사하여 同德女學校로 재정비 출범시켰다. 그러나 1914년 私立學校 規則 發布는 이른바 不實學校 도태라는 名分밑에 1910년 5월 1973校였던 私立學校가 1914년 5월에는 731校가 폐쇄되어 1,242校가 남게되자 同德女學校도 천도교의 테두리에 일단 넣어 키워 나갔다. 천도교가 이 시기에 關여한 敎育기관은 서울의 普成學園의 3個校와 同德女學校 文昌普成學校(靑坡洞) 大邱의 嶠南學校·日新普通學校 淸州의 崇實學校 敎

員養成所 등 7~8個校에 이르고 있었다.

민족종교로서 출발한 동학이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이 시기에 이 정도의 교육에의 參與는 그 정신이나 재력동원에 있어서는 당시로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동학의 최초로 내걸었던 輔國安民 理念은 3·1운동에서 천도교가 치룬 활동에서 그 소임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30년대 이후 日帝植民地政策의 斷末魔的인 發惡相을 보이기 이전까지 주어진 식민지적 여건속에서도 천도교가 이룩한 일련의 文化·教化事業은 우리의 교육사에 수렴되어야 할 업적이다.

1910년대의 천도교는 1910년 3월 天道教 師範講習所의 설치, 동년 8월 「天道教月報」 창간등 작업에 이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社會運動을 펼치게 되자 그 教理도 社會化의 요청에 부합 조정하게 된다. 교도들의 誠米를 중심으로 자금동원도 가능했기에 1920년 「開闢」, 1926년 「新人間」, 1922년 「婦人」(1923. 10 新女性改題), 1923년 「어린이」이 밖에도 「別乾坤」등이 창간 되면서 교단의 青年會運動, 少年運動, 農民運動, 婦女運動이 제도화되어 1923년에는 「天道教青年黨」이 창당되면서 東學教理의 社會化·보급화가 이루어져 갔다.

이에 「地上天國建設運動」이 人乃天 사상의 발전적 教理로서 대두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차대전 종결 이후의 세계정세라는 주변 여건도 겹쳐 천도교 청년 지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青年教理講研部를 조직, 教理의 연구·선전과 新文化의 向上發展에 주력할

것을 추진 하였으며 이것이 1923년에는 天道教青年黨으로 擴大 발전되었다.

천도교청년단의 내걸었던 운동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

① 黨員訓練

인간 자체의 개혁을 선결과제로 보고 後天開闢의 現役戰士인 당원 자체훈련을 첫째로 한다.

② 布德運動

후천개혁은 새 힘이 아니면 이를 수 없으니, 새魂을 가진 사람들로써 布教조직과 結成에 힘 쓴다.

③ 教理의 研究闡明 및 内外宣伝

天道教理를 더욱 밝히며 개혁혼을 把握하여 주변인에 널리 알린다.

④ 蒼生組織

밑바닥에서 고난을 겪는 蒼生층과 이해 고락을 같이 하면서 蒼生 자체의 조직적 결성을 도모한다. 조직의 구체적 방법은 性別, 年令別, 職業別로, 女性, 少年, 青年, 學生, 農民, 勞動, 商民 七個 부문으로 구분·조직하여 部門運動으로 추진한다.

⑤ 文化運動

인간 사회의 근본적 向上은 蒼生級의 意識的 각성과 文化的 向上에 있다..

⑥ 體育運動

천도교의 性身雙全(靈肉一體)로 보아 정신수련과 함께 肉體的 수련을 동일시하여 당원 자신의 신체단련 進進화는 물론

이를 보급시켜 蒼生 보건을 도모한다.

⑦ 情勢研究 및 通俗運動

직접 관찰과 文書를 통하여 社会的疾病을 자세히 진단하는 情形研究가 있겠고, 党的 취지와 蒼生의 호흡에 共感帶를 마련해 가는 것이 通俗運動이 된다.<sup>45)</sup>

고 그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서 部門運動으로서 1921년 어린이의 정서함양, 윤리적 대우와 사회적 지위를 人乃天主義에 따라서 向上시키자는 金起田, 方定煥 등이 중심이 되어 「天道教少年會」를 조직하였고, 1924년 3월 31일 朱鈺卿, 金友卿, 孫広燾의 발의로 女性의 修道向上, 여자일꾼養成, 社会地位向上을 위하여 「天道教内誠團」을 조직하였으며, 동년 6월 8일 천도교적 교양훈련과 학생대중의 의식 각성을 위하여 「天道教學生會」를 조직하였다. 1925년 8월 17일, 총회에서 소년 및 농민을 계몽하여 집단생활 의식을 훈련키 위해 소년 및 농민단체를 조직키로 하여 1926년 「朝鮮農民社」를 積極的으로 후원, 1930년 4월 6일 이를 정식으로 농민부문단체로 흡수 발전시켰다. 1933년 党勢擴張과 사업발전을 위하여·노동, 농민, 幼少年, 女性, 学生, 青年, 商民 등 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적극 후원지도 하였다.<sup>46)</sup>

이러한 부문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日帝末期가 되면 이러한 民族力量補充 운동은 위협시되어 일

45) 趙基榮, 天道教青年党小史, 京城: 天道教青年團本部, 1935, PP.18 ~ 20 参照

46) 前掲書, PP.40 ~ 41 参照

제의 탄압과 강제적인 해산을 받게 된다.

그 밖에도 천도교 교단에서 발간한 자료나 논저로서는 정기간행물로 1920년 6월 25일 창간된 종합지로서 「開闢」이 6년 6개월간 군림했으나 강제 폐간당하고, 26년 그 대신 「別乾坤」을 발행해 오다 34년 11월 「開闢」을 속간했으나 몇 호 내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20년대에서 30년대 중기까지 天道敎系 출판물이 당시의 민족주의적 사상운동의 흐름을 주름잡았으며, 이 밖에도 20년대의 「新人間」, 「新女性」, 「學生」, 「어린이」, 「農民誌」, 30년대에는 「農民旬報」 등이 나왔다. 「衆聲」(1928.11.17~18호 까지 발간) 「第一級」(1929.3.1 창간) 「新經濟」(上同), 새벗(上同), 「慧星」(1931), 「黨聲」(1932), 「黨學」(1937)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렇듯 당시의 전 生活分野를 啓導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출판활동 가운데 특기할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으로 된 大學講義錄이 1933년 7월 1일부터 「自修大學講義」란 이름으로 천도교 청년당 본부에서 月刊형식으로 11권까지 낸 바있다.

이 自修大學講義는 3·1운동 이후 천도교계가 벌였던 言論事業, 思想運動의 終章을 장식한 간행물이기도 하다.

이 강의록이 표방하고 있듯이 「朝鮮文으로 처음 刊行된 自修大學講義」로서 日帝植民地下에 고등교육 기회가 거의 박탈된 상황에서 고등교육기회에의 대중적인 요구를 국문대학교재로서 내놓았다

는 데 그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특히 「自修大學講義」 발간은 천도교 청년단의 언론출판물을 통한 민족사상과 사상계몽운동이 이미 폐간 조처 등으로 벽에 부딪치자 마지막 「아카데미즘」을 내걸고 그 돌파구를 찾고자 한 우리글에 의한 대학교육의 自學運動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것이다.

암흑기에 접어 든 이 시기에 「吾人의 新文化樹立을 爲하여 此에 需應할 専門지식을 授함을 主旨로」하여 月刊 自修大學講義는 宗教, 哲學, 政治, 經濟, 社會, 藝術, 體育의 七科를 設定하고 3개년 間 自修할 計劃 밑에 通信開講되었던 것이다.

본 通信講義는 말할나위 없이 그 목적은 천도교 청년당원을 위한 고등교육을 겨루고 있었다. 따라서 교과편성이나 집필진은 당시로서는 공인하는 사제의 인사에게 위촉되고 있다. 그 중 「宗敎學」은 夜雷 李敦化가 담당했다.

강의 구성 및 내용을 보면

第一講, 人乃天主의 見地에서 본 宗教의 新定義

第二講, 原始人의 宗教意識과 宗教進化의 概念

第三講, 中國宗教의 概要

甲, 中國 古代의 宗教思想

一, 道教의 要領 二, 儒敎

까지로 그 목차가 나와있고 그 부분까지만 실려 있다. 그 내용은 人乃天主義에서 종교를 풀이하고 中國의 종교를 西洋 哲學의 觀點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 서술도 天道敎宗敎哲學의 形成을 위

한 정리라는 관점에서 그 내용의 전개가 주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필자의 선정 구성이나 강의내용 편집면에서는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흔적이 담겨 있다.<sup>47)</sup>

아 물론 직접적으로 학교를 건립하고 교육활동을 표면적으로 직접 전개한 것은 아닐지라도 동학이 천도교에 와서 이론 일련의 종교적 布教·教化事業 文化事業의 이름을 빌린 제반 활동과 천도교 청년단의 部門運動 등은 日帝下의 민족교육의 활동상으로서 정리되고 재평가 되어야 할 업적이라고 하겠다.

47) 景仁文化社編輯部, 自修大學講義(影印版), 서울: 景仁文化社, 1972.

## Ⅵ. 結 語

이상으로 東學이 發生되었던 時代的 精神的 배경과 더불어 東學의 教育思想이 지닌 구조와 그 전개를 함께 알아 보았다.

東學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했던 教育組織과 實際分野에서 남긴 각 分野의 綱目할 이론과 그 실천들도 하나의 테두리에 묶어서 정리해 보고자 했다.

여기서는 동학이 남긴 유산 가운데 우리의 교육발전에 있어서 재음미되고 재조명되어야 할, 나아가서는 계승·발전되어야 할 요소들을 간추려 이 論文의 매듭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동학이 지닌 사상적 성격면에서 우리의 近代化를 지향하는 긍정적 연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侍天主해야 한다는 것이 동학의 기본이며 성격일 것이다. 이는 養天主에서 人乃天으로 발전되었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한울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동등하다는 인간존엄 사상의 명제에서 근대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동학은 전래적인 민간신앙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동학이 지닌 민족적인 성격과 더불어 전래된 儒·佛·仙 심지어 西敎的 요소의 폐단의 극복이라고 할, 즉 세계의 四大宗教를 비판·종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동학의 宗旨이며 그 敎理일 것이다. 이렇듯 종래 종교를 절충·지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동학의 민족종교

적 성격을 정립케 하였고 개혁사상을 통한 새로운 指向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일 것이다.

한편 동학의 성공 배경은 당시와 같은 複雜한 內外政勢 가운데 잠자던 민중의 가슴에 새로운 불길을 당기게 한 엄청난 격동의 底力이 된 요소들은 간단히 설명될 수 없으나 동학이 지닌 教義와 그 布教方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教理의 매력적인 내용으로서 억압된 민중을 해방하여 人權을 회복케 하는 즉 모든 人間은 侍天主 하였기에 人乃天의 의침은 이제까지 억눌려 왔던 인간적 가치를 깨우치게 했고 빈부귀천의 차별없이 億兆蒼生은 同歸一體한다는 생동적인 理想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布教方法의 대중화로서 일찌기 신라의 元暎가 난해한 佛敎의 교리를 無碍歌라는 노래를 통하여 귀천이나 老幼를 가리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부르게 하는 가운데 부처의 말씀을 퍼 나갔던 通佛敎의 전례처럼, 동학은 民衆의 의식수준에 맞춘 가사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民衆의 생활과 감정에 강하게 호소할 수 있었기에 더욱 活性化가 가능했다.

한편 동학은 宗教로서도 政敎一致를 순수하게 구체화 시켰다. 흔히 종교가 특권적·미신적·주술적·도피적 성향으로 흐르기 쉬웠던 사실들에 비추어서 동학은 종교와 사회·국가·민족의 관심을 동일선상의 비중으로 격상시켰다. 그 특성으로서,

첫째, 지난날의 국가운명의 責任을 양반 즉 특권계층의 전유물로 여겼던 保國安民의 소임을 민중의 것으로 자각시켜 근대적 國民主權思想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체성을 구체화시켰다.

둘째, 동학의 반봉건을 표방한 積極的인 社會參與 정신은 혁신運動으로 발전되었으며 급기야 侵略外勢의 배척이라는 斥洋斥倭의 護國精神으로 승화되었다.

셋째, 개인의 이익(충실)이 사회 및 국가이익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天理天命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개인이 전체 속의 구성원으로 터해야 한다는 個全一體와 또한 모두가 同歸一體 되어야 한다는 전체조화설과 같은 運命共同體意識의 환기였다.

넷째, 동학이 全奉準에 의한 甲午 東學農民戰爭을 치르게는 되었으나 동학의 기본취지는 모든 개혁은 비폭력에 의한 인간본연의 자각을 터전으로 점진적으로 동학정신이 인간사회에 침투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평화개량주의 정신으로 임하고자 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동학의 進展過程에 구체적으로 부각된 事人如天, 即 人乃天이 표방하는 人間至上主義와 人間平等主義의 터전 위에 미신·우상·편견·利己 등 諸惡과 정신적 질병의 퇴치를 부르짖은 「정신개벽」, 인류사회의 집단적 地上天國의 건설과정에서 요청된 民族生活改善으로서의 「민족개벽」, 인류평화는 상부상조하는 사회실현을 위한 「사회개벽」<sup>48)</sup>의 과정을 들었는데 그 제시한 비전은 民族近代化의 里

48) 李敦化, 新人哲學, 서울:天道教中央本部, 第4編 第3章 開闢方式와 三大開闢 參照.

程標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附記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義菴의 일본 망명시기의 유학생 파견, 3·1 운동을 비롯하여 이른바 日帝下에 天道教가 전개했던 막중한 계몽운동의 거대한 자금조달이 신도들의 가족 수대로 한 솥가락씩 각출한 誠米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개개인의 조그마한 誠意가 모여 줄기찬 大河의 흐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소박하나마 변할 수 없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는 면에서 기억되어야 하겠다.

東學思想의 生命化에는 이렇듯 뛰어난 조직원리와 운영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동학이 이루고자 했던 思想的 核心은 앞으로 우리의 人間教育의 이념으로서 깊이 가꾸어지고 다시 정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参 考 文 献

- 天道教編，天道教經典，서울：天道教中央總部（布德 110年，1959）
- 韓國學文獻研究所編，東學思想資料集（堯～參） 서울：亞細亞文化社，1979
- 白世明 編著，天道教經典解義，서울：天道教中央總部，1963
- 白世明，東學思想과 天道教， 서울：東學社，1956
- 李敦化，新人哲學 附 東學之人生觀，서울：天道教中央總部，1968
- 朴応三，東學思想概論，圓谷文化社，1975
- 崔東熙，金用天 共著，天道教 [ 韓國宗教大系Ⅶ ]，裡里：圓光大宗教問題研究所，1976
- 金庠基，東學과 東學亂 [ 春秋文庫 002 ]，서울：한국일보社，1975
- Benjamin B. Weems 著，洪晶植譯，東學百年史 [ 瑞文文庫 173 ]，서울：瑞文堂，1975
- 朴鐘鴻 編，韓國思想叢書 Ⅲ， 서울：韓國思想研究會，1973
- 李瑄根 編，義菴孫秉熙先生伝記， 서울：義菴孫秉熙先生紀念事業會，1967
- 景仁文化社編輯部，自修大學講義（影印版） 서울：景仁文化社，1972
- 鄭亨愚 編，東學歌辭（Ⅰ～Ⅱ） 城南：韓國精神文化研究院，1979

## Abstract

### The View Of Man in Donghak and Its Implications for Modern Education

Lee, Won - ho

Donghak is considered the first movement, initiated by the people themselves, of civil rights in Korean history, which confirmed equality and dignity of all men. It is suggested that those ideas and norms of Donghak should be understood and accepted as a precious inheritance of humanistic foundations of Korean education. Above all, an affirmative aim for modernization stemmed from the Donghak thought.

First, the thought confirmed a proposition of human dignity by the idea of 'Innaechun' (人乃天). The idea of Innaechun was developed from "Sichunju" (侍天主) and "Yangchunju" (養天主), Innaechun means that man is the very heaven.

Second, the Donghak was built as an original religion of Korea by synthesizing, compromising, and overcoming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even Christianity. Furthermore, it presented a new direction through the idea of "Gaebuyuck" (開闢).

Third, it also showed a dynamic ideal in the propagative method, in which the people's awareness and equality of all men were the main factors. Appealing to actual life and emotion, an outstanding example of pedagogical application was used in the propagation through "Gasa" (歌辭), which were conformed with the people's consciousness of the period.

Fourth, Donghak was thorough in the union of Church and State. It raised the concerns of religion, society, people,

and nation to an equal line rather than their separate understanding, overcoming superstitious, wizard, and escapist nature of a religion.

Fifth, the Donghak embodied modern sovereignty of the people by awakening the people's role for patriotism and service to one's country, which was previously solely responsible for the privileged class: "Yangban" (兩班).

Sixth, advocating anti-feudalism, the participant spirit in society was sublimed into that of national defense such as anti-Westerners and anti-Japanese and the spirit, at the same time, became the driving force by which "Gapo-Nongmin-Jeonjaeng" (甲午農民戰爭) was outbreaken. This spirit of independence can be found in the context of the role of Donghak in "Samil" (三一) movement and enlightenment campaign under the Japanese rule as well.

Seventh, on the grounds of humanism and egalitarianism, the development of Donghak thought achieved "Jeongshin-Gaebyuck" (精神開闢) by eliminating the various evils such as superstition, idol, prejudice, and selfishness.

It also completed "Minjok-Gaebyuck" (民族開闢) which was necessary for the making of an ideal society. Finally, it showed a signpost of "Sawhoi-Gaebyuck" (社會開闢)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ety.

It should be noticed as well that the solid organization and management with outstanding background of thought were existed in the realization of Donghak thought.

It is believed that the core of Donghak thought provides a good idea for humanistic foundations of Korean education in the future.